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평안히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26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3월 27일 (토) 제 1819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발행인 칼럼

세상을 바꾼 3일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1991년 8월 19일, 궤음(龜音)과 함께 탱크들이 모스크바 거리를 진입했다. 그 날 아침 7시부터 모스크바의 텔레비전 방송국들과 라디오 방송국들의 정규 방송은 중지되었다. 당시 소비에트 연방 대통령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모스크바 남쪽 1500km 떨어진 크림반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소련 보수 강경파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다. 쿠데타에 의해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고립 당했고 모든 통신은 두절되었으며 심지어 핵미사일 발사 암호가 담긴 가방마저 빼앗겼다. 반역(反逆)이었다. 경악스러운 것은 쿠데타의 주동자 8명 모두 고르바초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자들이었다는 것이다. 모스크바에서의 소문은 쿠데타가 성공한 것 같이 퍼져 나갔다. 그러나 온

세계가 숨을 죽이며 바라보았던 소련의 정변(政變)은 8월 21일, 3일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반역의 주도자들은 그 당시 죽거나 훗날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 권력을 잃고 역사에서 사라져 죽은 것 같았던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놀랍게도 정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3일 만에 다시 권력을 회복한 후 변화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소비에트 연방에서 여러 나라들이 차례로 독립을 선언하였다는 것이다. 급기야 1991년 12월 26일 소비에트 연방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고 그 후 소련은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었다. 소련의 해체와 변화는 자신과 온 세상에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반역은 저 하늘에서도 있었다. 하나님에 의해 하늘의 꽤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있던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반역을 일으킨 것이다. 금요일 그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그들은 자기들의 반역이 완전히 성공한 줄 알았다. 이제 완전히 제 세상인 줄 알았다. 자기들의 좋아하는 어둠으로 온 세상을 덮어 놓을 것이요, 자기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날 사람들을 생각하

니 질로 콧노래가 흘러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희희낙락(喜喜樂樂)은 삼일 만에 끝났다. 예수님이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전복(顛覆)시키고 사단의 나라를 세우려던 사단의 음모(陰謀)는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그 3일은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가장 큰 변화는 세상에 소망의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세상은 시작된 그 종말의 완성을 기다리는 이중구조(already-but not yet)로 재편되었다. 시작된 종말은 완성의 종말을 사모하며 기다린다.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꾼 예수님의 3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크게 낙심한다. 언제 그 고통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3일이면 된다. 물리적인 시간에 다소 차이는 있을지언정 부활에 이르는 3일의 원리는 어디서나 적용된다. 30년 전 반역자의 무리를 제압하고 3일 만에 화려하게 복귀한 고르바초프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극히 적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지금 예전처럼 세상에 영향

을 끼칠 아무런 힘도 없다. 2천여 년 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어찌하신가. 다르시다.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어 지금 하늘에 계시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왕이시다. 시작된 종말이라고 부르는 이때에 하늘 왕의 통치는 그의 재림으로 완성될 종말의 때까지 유보(留保)된 것이 아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전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시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의 하늘 통치는 지금도 이 땅에서 왕성(旺盛)하게, 눈이 부시게 전개(展開)된다.

역울한가. 피곤한가. 캄캄한가. 창피한가. 아픈신가. 에이는가. 가난한가. 떨리는가. 죽겠는가. 왕을 부르라. 즉시 왕을 부르라. 모든 상황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3일 만에 다시 사신 왕을 목 놓아 부르라. 3일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시어 세상을 바꾸신 예수님은 어두움을 빛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가난을 풍성으로, 아픔을 건강으로, 수치를 자랑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기에 넉넉하신 우리의 왕이시다. 그렇다. 세상을 바꾼 3일의 이야기는 영원한 소망의 이야기이다.

2021 부활절 속시

트럼펫의 합창



나삼진 목사
(오렌지카운티살롬교회)

우리들의 허물 켜켜이 쌓여
듣보지 못한 재앙이 온 땅을 휘감고
바로 나라 그 마지막 밤처럼
검정 너울의 칼춤은 전쟁보다 무서워
아메리카에서만 56만 생명을 잃었구나

지난해 사순절, 온 누리에 일어난 희색 공포
COVID-19은 너와 나 사이에 거리를 만들고
입을 닫고, 만남을 막고, 예배당 문도 걸어 닫아
모두 집에 머물라 하였더니
하루의 빵을 만드는 사람들 고통은 끝이 없어라

부활은 죽음을 이기나니
부활은 악한 바이러스도 이기나니
어느 해보다 부활절을 기다렸나, 우리는
만나고 노래하며 춤추는 예배가 그리웠더니
어두운 성전에 다시 기도의 등불 밝히고 싶어라

지금은 부활의 계절, 캘리포니아 사막 들만에
흐드러진 파피꽃이 아침마다 눈을 비비고
트럼펫나무들이 일제히 분홍빛 합창을 하면
회복과 새출발을 노래하니, 우리는
생명과 승리를 선언하나니

저자소개: '창조문예로 등단, 시집 "생각의 그물"(세종도서 문학나눔 우수 도서), "배와 강물", 에세이 "살롱을 꿈꾸다", 창작시 음반 "즐거운노래" 등. 국 민일보 기독교교육대상,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최우수상, 기독교교육자상 수상, 현 오렌지카운티 살롬교회 목사.



시론
류용렬 목사



부활절 설교
문석호 목사



한국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교서적/일번서적/백트랙서적/성구/성화/역사/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교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뉴저지 Tel. 201)346-0030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press.net | chpress@chpress.net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경공부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제 47회기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할렐루야! 부활의 새롭고 힘찬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회원 교회들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전통적으로 저희 뉴욕교협은 뉴욕지역을 약 22개의 지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회원교회들이 함께 모여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전과 같이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신, 각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예배를 준비하여 드리십시오. 다만, 예배시 현재 뉴욕교협이 펼치고 있는 10-10(텐텐) 기도운동의 기도제목으로 성도들과 함께 합심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도제목: 1)코로나 종식과 교회 회복을 위하여
- 2)세계선교와 선교지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하여
- 3)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를 위하여

그러나 혹 교회 자체적으로 부활절 새벽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회원교회와 속한 성도들이 있다면 본 47회기 뉴욕교협에서 준비한 부활절 연합새벽예배에 현장 또는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1년 4월 4일(일) 오전 6시

장소: 뉴욕효신장로교회(문석호 목사 시무)
(1661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시론

애틀랜타 총격 사건과 부활의 복음



류응열 목사
(와싱턴중앙성도교회)

애틀랜타 총격사건 후에 제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 지역의 덴 헬머 하원의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총격사건으로 숨진 8명 가운데 한인여성 4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면서 한인들의 정서를 물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백인 남성을 규탄할 필요는 없지만 최근 심각하게 증가되는 아시아인 혐오상황에 대해서는 한 도시를 넘어 미국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여러 민족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백인이 동양인이나 타민족을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은 똑 같은 미국 땅에 살아가는 동양인이 백인이나 남미인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입니다.

미국수도 워싱턴 지역에 있는 한인을 대표하는 몇 지도자들이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공동된 마음을 담은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메시지의 일부를 우리말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친애하는 바이든 대통령께, 워싱턴 수도권 한인커뮤니티의 대표자로서 우리는 애틀랜타 집단 총격사건 희생자들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애도합니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증오를 비난하고 이러한 무의미한 살인에 충격과 공포를 느낍니다. 미국은 지난 1년 넘게 COVID-19의 공격을 받아왔으며 아시아 증오범죄의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수많은 공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애틀랜타 대량 총격사건은 이러한 증오범죄 중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많은 아시아인의 마음에 분노의 샘을 자극했습니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급증하는 반 아시아 증오사건은 연방과 주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애틀랜타 총격사건은 미국 역사에서 경험한 수많은 차별과 폭거의 역사 가운데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이든 세계 어느 나라에도 개인차원의 범죄뿐 아니라 인종과 민족과 연관된 범죄도 늘 있어왔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고귀한 정체성을 짓밟고 인격을 파괴하는 비이성적으로 무자비한 폭력에 분노합니다. 한편 크리스천은 부조리와 폭력으로 둘러싸인 세상의 잔혹한 현실 앞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성경말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범죄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류로부터 나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공정한 정의가 세워지기를 노력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본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비로소 개인이든 집단이든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과 함께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길은 당신의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피는 용서의 강이 되어 우리 가슴에 흘러 넘치고 마침내 온 세상에 부활의 생명을 알리는 새 아침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류는 죽음의 동굴을 지나 하늘의 생명이 임하는 빛의 터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위대한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도록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40년 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쯤조차 생소했던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와 땀과 피를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을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때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민족과 인종의 장벽을 넘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영광의 부활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될 때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preachchrist@kcpc.org

부활은 희망이며 새로운 미래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진정한 사도로 변화된 베드로 통해 '2021년 부활절' 의미 다져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복잡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메시지는 큰 기쁨의 소식이 분명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 대유행이 돼 (pandemic) 인류를 위협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 예배하는 기쁨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역사상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교회공동체는 믿음을 잃지 않고 부활의 기쁨을 전파하고 다녔다. 불안정한 현실에서도 부활의 거룩한 힘과 기쁨이 그리스도의 몸인 공교회와 오늘날 세계에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 역사의 현장에서 서심자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타자를 위한 존재

로 사셨다. 보혈을 통한 대속의 희생과 죽음의 권세를 꺾은 부활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셨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의 부활에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며 새로운 실존으로 들어간다.

부활에서 열린 하나님의 나라는 절망의 심연에서 솟구치는 희망이며 길 없는 벼랑 끝에서 이어지는 미래다. 이 거룩한 힘과 기쁨을 크리스천이 먼저 체험하고 이웃에게 삶으로 전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의 논리가 아니라 신앙의 삶으로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부활 사건을 통해 진정한 사도로 변화된 베드로 이야기는 바로 새롭게 열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제시해준다.

해마다 봄은 우리에게 부활을 생각하게 하며 흥겨운 길거리를 활기차게 한다. 기독교 전통은 긴 겨울을 끝내고 싹이 틀 무렵 부활절을 맞아 부활과 희망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마다 상기는 부활이란 무엇일까?

많은 사람이 부활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부활의 역사성과 그 증명에만 몰두한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단지 믿음의 문제로만 다루어, 이 중요한 주제는 죽음 이후에나 의미 있는 주제가 돼버린다. 이 극단적 두 태도 사이에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매번 새롭게 발견해야 할 부활의 의미는 상당 부분 훼손되기 마련이다.

부활은 삶이고, 그렇기에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드러나야 한다. 부활은 희망이고, 그렇기에 고통의 자리에서 생각돼야 한다. 부활은 종착지이고, 그렇기에 모든 철학적 질문과 함께 성찰돼야 한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 지칠 때, 지금도 세계 곳곳에 만연한 불의와 고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거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부활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부활의 개념과 의미를 탐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용'이다.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크리스천들에게는 거창한 신학적 탐

는 함께 공명 현상을 일으킨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베드로의 이야기(요 21:15-19)도 방향을 잃었던 베드로가 소리굽쇠

주님을 부인하고 만다.

베드로는 예수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세 번 받았고, 세 번 다 부인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하던 순간 예수의 예언대로, 닭이 울었다. 닭이 울었을 때,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셨다(눅22:61).



1515년 라파엘이 묘사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Restoration of Peter'

로마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천대받던 갈릴리 땅에서 생활하던 베드로에게 새로운 세상을 향한 꿈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를 따르는 삶을 추구할 만큼 절박했다. 세리와 창녀 같은 사회의 가장 작은 자를 품으시던 주님, 오천 명을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조차도 다스리시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던 주님을 보며, 이제 정권권력만 가지면 새로운 세상이 올 줄 알았던 베드로가 메시아 운명을 운운하시며 불안하게 하시더니 결국 무기력하게 체포돼 죽을 운명에 빠진 주님을 보았을 때, 그 주님을 부인했던 심정도 이해할만하다.

구보다는 부활을 다루는 신앙 에세이나 좋은 설교들을 통해 오늘 우리 삶에 적용되는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부활의 진솔한 의미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시키려 할 때, 좋은 도구가 있다. 바로 '소리굽쇠'다.

소리굽쇠(tuning fork)는 고유한 진동수의 음을 내기에 악기를 조율할 때, 기준음을 내는 도구로 사용되는데, 신기한 것은 소리굽쇠가 울릴 때 주변에 있는 같은 진동수의 물체

의 공명 효과로 다시 그 방향을 찾는 과정을 묘사한다.

형 안드레를 통해 만난 예수가 꿈에 그리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확인한 베드로는 예수의 부르심을 좇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반인의 삶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나선다. 그의 인생이 주님을 향해 방향을 잡은 순간이다.

하지만 우직하고 의리 있을 뿐 아니라 충성스러울 만큼 마음이 뜨거웠던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인생길에 생기는 당연한 욕구들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했기에 예수조차도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자신과 씨름해야 했다.

(3면으로 계속)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위장 내시경,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검퓨터 비드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의학적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인내: 치아(식/임플란트), 구강외과, 불니, 보철치료, 미용성형치료,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3, July 10, and Nov 27.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생강집이 터지는

ZOOM 구약성경일독학교

어? 성경이 읽히지네!

이매실 대표의 '어? 성경이 읽히지네!'를 성경읽기 전문강사로부터 배운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시원하게 읽혀드립니다~

개강 날짜 및 시간

- 2021년 4월 7일 ~ 6월 30일
- 매주수요일 7:30pm-9:30pm

강의 방법 : Zoom
교재 : 성경책, 구약 워크북, 구약읽기 내비게이션

강사진

- 김덕수 목사 (하늘소망교회 담임, 생터성경사역원 LA 지부장)
- 김소연 사모
- 홍에스더 전도사
- 정인주 전문강사
- 나미선 전문강사
- 김미경 전문강사

문의

문의 : 홍에스더 전도사 (213-330-6995, estherhongstar@gmail.com)

생터성경사역원 Life Place Bible Ministries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그 기가 막힌 사건을 결코 잊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도 따랐고 의지했던 그분의 그 비참한 죽음을 말입니다!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각자 흩어진 채, 제 갈 길을 갔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에서 다들 놀라 눈물을 흘릴 뿐,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엄청난 상황에서 들려오는 또 하나의 소식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나타나셨다는 주님에 관한 소식을 듣자... 다들 놀라는 가운데, 두 가지의 반응이 사람들에게서 나왔지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말도 안된다!'는 의심의 반응이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지요. 그야말로 의심과 경배가 뒤섞인 상황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신의 사람들은 '콩으로 메주를 쏠다' 해도... 믿지를 않는 반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뭐든지 믿으려는 모습으로, '팥으로 메주를 쏠다'고 해도 믿는 경향이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경험이나 이성적 판단을 넘어서서, 오직 성경의 말씀만을 믿으며 따라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도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물며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불신이 난무한 시대에... 과연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또한 장차 주 안에서 죽는 성도들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는지...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셔야 할 줄 압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올바른 성경중심의 신앙을 위한 시금석이며,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이 어려운 고난의 시대를 이겨내는 든든한 믿음의 좌표가 될 압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결코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혼란한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는 세상'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하되, 내세를 부정하면서 현세만을 즐기려는 현대적인 삶의 방식을 멀리하고 이 시대에서의 소명의식과 함께 내세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설교

부활신앙: 예수의 이름과 그 권세를 힘입어!

마태복음 28장 16-20절

문석호 목사
(뉴욕 효신장로교회 담임)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 내신 이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든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됨의 권세'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당하는 시험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성도의 힘과 권세는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에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 그 능력의 주님 예수는 오늘날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그분의 이름을 힘 입고 살면서, 능력

믿고 나아가갈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라!'고 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으며, '가서 세례를 주라!'고 하실 때에 '나가서 세례를 줄 수 있으며', ('가서 가르치라'고 하실 때, 나아가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명한 아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왜 그의 기도가 그토록 유명하며, 왜 그의 기도가 훌륭하다고 합니까?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도'였습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기도'였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응답의 기도'를 이루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뤄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따라 하나님을 '왜소한 분'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그분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 속에서 탄식하지만 말고, 기도하되, 능력의 주님을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권세자이신 주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이 어려운 환란의 날에, 또한 장차 계속될 고통의 날들 앞에서, 우리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인정하는 기도'였기에 우리는 그 기도를 본받으자 하는 것이지요.

비록 아베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고난과 고통'이었다 해도, 그 문제를 하나님에게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는 담대하게 외쳤던 것이지요. 역대상 4장에 나타난 그의 기도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원컨대 내게 복을 더 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시며'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이 어려운 환란의 날에, 또한 장차 계속될 고통의 날들 앞에서, 우리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인정하는 기도'였기에 우리는 그 기도를 본받으자 하는 것이지요.

오늘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것이 아닙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는 것이 아니었나요?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위대한 명령인데,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받아야 할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명령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는 오늘의 성경 본문이 말씀하는 위대한 '마그나카르타'(대헌장)로서,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들을 순종함으로...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부활을 믿는 신앙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날 어지러운 뒤로 쳐지지 말고, 그저 탄식하지만 말고,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이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이 어렵고 힘들어진 상황에서 탄식지만 말고, 그냥 주저앉지만 말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 옛날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렇게 외치면서 또한 응답을 드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6:8).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알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moonlight8937@hanmail.net

<2면에서 계속>

빵, 권력, 기적이라는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기본 욕구들이 삶의 전부라고 막는 속삭이며 예수로 하여금 지향하는 바를 잃게 만들기 위해 애썼지만 주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셨다.

즉, 삶의 현실적인 욕구는 우리의 삶을 이루는 당연한 내용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절대적인 의미는 아니며 인생의 필요조건이 항상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구상 시인은 주님의 부활로

세상에 주어진 사랑의 선물을 이렇게 그려준다: 죽어 썩은 것 같던/ 매화의 옛 등결에/ 승리의 화관인 듯/ 꽃이 눈부시다. 당신 안에 생명을 둔 만물이/ 저렇듯 죽어도 죽지 않고/ 또

다시 소생하고 변신함을 보느니/ 당신이 몸소 부활로 증거한/ 우리의 부활이야 의심할 바 있으랴!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진리는 있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정의는 이기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헛되지 않으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허무의 수렁이 아니다. 봄의 행진이 아롱진/ 지구의 어느 변두리에서/ 나는 우리의 부활로써 성취될/ 그 날의 누리를 그리며/ 황홀에 취해 있다. <4면으로 계속>



벅스카운티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공고

벅스카운티 장로교회는 필라델피아 교외에 위치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APC) 소속 교회로서 1974년 창립한 이후 47년 동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화목하고 섬기는 교회로서 아름답게 성장하여 온 교회입니다. 현재 담임목사님이신 김풍운 목사님께서 정년 은퇴하심에 따라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본교단(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서 인준하는 정규 신학대학원(Master of Divinity 또는 동등학위)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 미국에서 5년 이상 담임 목사나 부목사로서 사역하신 분
- 2종언어(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신 분
- 미국 내 목회 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는 분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 소지자)

제출서류

- 한글과 영문 이력서 (사진 첨부)
- 자기소개서 (신앙 고백과 가족 소개 포함)
- 목회 비전 및 목회 계획서
- 대학교/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각 1부
- 목사 안수 증명서/소속 증명서(노회발행) 각 1부
- 목회자가 직접 보내는 연락처가 포함된 봉인된 추천서 3통
- 최근 1년 이내의 설교 동영상 2편 (web link)

Bucks County Presbyterian Church
후임목사 청빙위원회

1550 Woodbourne Road Levittown, PA 19057
www.buckscountychurch.org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심사후 안전하게 폐기되고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위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서류심사 후 개별적으로 통보드립니다.

서류 제출처 및 마감일

- 제출 마감일: 2021년 4월 30일까지
- 모든 서류는 info@mybcpc.org에서 e-mail로만 접수합니다.
- 추천서는 아래 교회 주소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림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부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가 부활이다. 부활이야말로 죄로 더럽혀진 인생들이 변화 받고 영원한 세계에 이르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이런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그동안 죽었던 식물들이 따사한 봄볕이 내려 쪼이게 될 때,

양상한 가지에서 양증맞은 노란 잎을 피워낸다. 그러면서 온 세상에 외친다. “나는 죽지 않았습디다.”

그 모습은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준다. 병원에서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이 고비를 이겨내고 퇴원할 때 사람들은 박수를 보낸다. 역경을 이긴 승리의 경이로움

때문에... 부활은 이처럼 모든 창조물들에게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가 된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부활에 대해 고전 15 장 전체를 할애하여 깊이 있게 설명했다. 고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평안이 주어진다. 반대로 부활을 부정하며 사는 자에게는 캄캄함과 두려움이 늘 동행하게 된다.

목사안수 동기생들 중 두 분이 있었다. 한 분은 장로출신으로 나이가 많았고, 또 한사람은 비슷한 연배였다. 그런데 두 분이 비슷한 시기에 암에 걸렸다. 한 분은 위암, 다른 분은 췌장암이었다. 몇 해 전에 두 분 모두 세상을 떠났다. 장로출신 동기생과는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까지 폐복을 통해 가끔 소식을 주고받곤 했었다. 그런데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항상 고백했었다. 부활을 확실하게 신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활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이다 싶다. 영광스러운 부활, 그 부활이 기다리고 있으니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도, 바울은 돌기둥에서 목이 잘리는 순간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부활을 소망했고 믿었기 때문이다.

부활은 너무나 아름다운 주제가에 많은 문학가들이 다뤘었고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 중에 톨스토이의 ‘부활’은 감명 깊은 소설이다. 주인공 네프류도프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이 버렸던 카투사에게 돌아오는 내용이다. 이런 식의 표피적인 부활에 만족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잘못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 바른 길을 가는 것도 일종의 부활일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한걸음 더 들어가 영적인 부활의 세계로 갈 수 있어야 한다. 톨스토이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하고 단순히 박

애주기로 예수님의 부활을 해석한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데 말이다.

역시 육체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레아 성서에 기록된 부활의 세계를 믿게 된다. 부활이란 단어는 알지만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다. 피상적인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믿어줘야 하는데 말이다. 부활의 증인으로 동참했던 사도들과 여인들처럼... 그 일에 증인된 자마다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된다. 죽음은 곧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하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로마의 성벽 밖에 있는 세 분수 수도원에는 오른 편에 작은 교회당이 있다. 그 교회당 지하실에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전에 갇혔다고 전해지는 감옥이 있다. 감옥의 크기는 한 평 반 정도인데, 감옥

벽에는 디오클레티아누스(Diocletianus, 244-311) 황제 때 순교당한 10,203명을 기념하는 석판이 걸려있다. 이들은 황제의 거대한 목욕탕 건축에 동원되었던 크리스천들이다. 그들은 로마군단병들로서 황제의 목욕탕 건축에 이용된 후 이곳에서 한꺼번에 목이 잘린 사람들이다. 그들의 흘린 피가 강을 이루었을 것이다.

억울한 순교의 상황에서 신앙을 배반하지 않았다. 영광스런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질박한 부활의 신앙이 이번 부활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한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부활의 믿음, 그 누가 이 진정한 부활의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영적으로 백신보다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다 싶다.

chiesadiroma@daum.net

아시아아메리칸 정체성 확립, 정치참여로 이어진다!

WP, USC 비비안 령의 잇따른 아시아 혐오범죄 연구 보도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3월 16일 오후 애틀랜타에서 중국인 등 아시아계를 표적으로 한 혐오범죄로 의심되는 연쇄 총격사건이 일어났다. 이 총기난사사건으로 한국인 4명을 포함, 최소 8명이 사망했다.

총격사건의 용의자는 21세의 백인 남성 로버트 에런 룡으로, 그는 “중국이 미국인 50만 명을 죽인 것”, “모든 미국인은 우리 시대의 최대의 악인 중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등의 글을 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총격 살인이 중국인 등 아시아계를 표적으로 한 혐오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태평양계를 향한 혐오범죄 감시단체인 Stop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Hate(SAAPH)은 2020년 3월 이후 아

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과 범죄 행위로 2,800건이 보고됐다고 발표했다.

USC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비비안 령(Vivian Leung)은 애틀랜타 사태 전인 3월 8일, 워싱턴포스트(WP)에 자신의 리서치(Recent attacks could push Asian Americans to get more politically active, research suggests: Being targeted by bias can drive people with extremely different backgrounds to identify under a common identity)를 기고했다. 잇따른 아시아인들을 향한 혐오범죄는 이들의 정체성을 다시 공고하게 하고, 정치참여로 이뤄진다.

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는 다분히 비뚤어진 고정관념이고, 영원히 미국에 동화될 수 없는 이방인에 머물 수밖에 없는 아시아계 미국인이 겪는 고통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다.

연구 방법

인종차별과 (모범적인 소수 인종과 같은) 잘못된 고정관념이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아시



최근 특히 고령층의 아시아계 미국인이 잇따라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공격을 받았다. 혐오 범죄(hate crimes)로 분류할 수 있는 일련의 사건은 미국 사회 안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지위가 얼마나 위태로 운지 보여준다.

미국 사회에 절대로 섞일 수 없고 주류가 될 수도 없다는 아시아인을 향한 오랜 편견도 아시안들이 살아가는 데도, 팬데믹 이후 인종 때문에 차별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아시아계 미국인은 10명 중 3명이 나 된다.

이런 경험이 정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제(Vivian Leung)가 진행한 연구결과를 보면 인종 때문에 차별받는 등 부정적인 편견의 희생양이 되면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자신의 인종 정체성에 오히려 더욱 집착하게 된다. 물론 아시아 대륙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아시아계’라는 인종 분류는 어폐가 있다.

역사적으로 두 가지 서로 다른 분야에서 나타났다. 먼저 건강, 위생에 관한 것으로, 아시아인들이 질병을 옮긴다는 우려가 편견으로 굳어진 사례다.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로, 특히 아시아인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우려 때문에 생겨났다.

1882년에 미국 의회가 중국인 배제법(Chinese Exclusion Act)을 제정한 데도, 1930년대에 백인 노동자들이 필리핀 출신으로 농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집단으로 습격한 배경에도 아시아인들 때문에 미국인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최근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중국에서 시작된 팬데믹이 전 세계를 뒤흔치자, 중국인 혹은 아시

아계 미국인을 향한 두려움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

반아시아 정서가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미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은 이른바 모범적인 소수인종(model minority)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모범적인 소수인종’은 다소 복잡 미묘한 개념이자 이중적인 차별의 기제가 되기도 하는데, 아시아인을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해서 미국 사회에서 고소득 전문 직종을 주로 갖는 성공한 이민자의 전형으로 그린다. 당연히 모든 아시아인

또한, 이 고정관념은 반대로 모범적인 모습과 거리가 먼 다른 소수인종을 폄하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 흑인이나 라티노를 향해 ‘아시아인처럼 모범적이지 않다’는 식의 딱지를 붙이는 행위가 그렇다. 게다가 아시아 대륙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곳이다. 출신국가, 종교, 문화도 서로 다르고 심지어 역사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나 문화권도 수없이 많은데, 이렇게 다른 이들을 한데 뭉뚱그려 ‘아시아계’라고 명명하는 분류법은 시대착오다.

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조사 이름은 2020 아시아계 미국인 유니버스 조사(AAOS)다. 설문조사 회사인 보비츠(Bovitz)가 2020년 2월 말에 스스로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규정된 이들 1,51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가운데 47%는 미국 밖에서 태어났고, 53%는 미국에서 태어났다.

아시아계 미국인이 아시아인을 향한 고정관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같이 진행했다. 응답

하거나 일치한다”라는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물었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치적인 정체성을 가장 많이 일깨운 건 ‘영원한 이방인’으로 아시아인을 묘사한 글이었다. 통제군으로 쓴 글에 비해 ‘영원한 이방인’ 글을 읽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한다고 답한 비율이 6.7%P 더 높았다. 출신 배경을 불문하고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면 정치적으로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도 더 많이 동의했다. ‘모

주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투표율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의회 선거에서도 역대 가장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이 표를 던졌다.

나의 일련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최근 들어 급증한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혐오범죄는 아시아인들이 출신국가나 문화 등 인종 정체성을 더욱 명확히 자각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현실정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시아계 미국인들도 늘어날 것이다.

아시아계 미국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유권자 집단이자 정치력 키워가는 집단 SAAPH, 지난 1년 새 아시아계미국인 대상 인종차별과 범죄행위 2,800건 보고

부활은 희망이며 새로운 미래다!

(3면에서 계속)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부활의 소리굽쇠로 그 사랑의 소리를 보내신다.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아침 식사 후 주님이 베드로에게 던진 세 번의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세 번에 걸친

주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에 사용된 “사랑한다”는 말에 해당하는 희랍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주님이 하신 처음과 두 번째 질문에 쓰인 “아가페(agape)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와 세 번째 질문에 사

용된 “필리아(philia)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이다.

하지만 베드로의 대답에 쓰인 사랑한다는 단어는 세 번 다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였다.

세 번의 문답 이후에 주님께 서는 이런 말씀을 덧붙이신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

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요 21:18)

유세비우스 같은 초대교회의 역사가들은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두 팔이 벌려진 채 죽임을 당했다고 말한다.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의 소리에 공명하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득찬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순교할 때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

부활절은 잃어버린 본래의 방향을 다시 찾아 필리아에서 아가페로, 부인에서 믿음으로, 상처에서 치유로, 실패한 제자에서 신실한 제자로 옮겨가라는 초대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가지신 소리굽쇠가 울려 퍼

질 때 그 사랑의 소리에 공명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의 말씀이, 그 사랑의 울림이 느껴지는 부활절이 돼야한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교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고전15:14).

(편집부)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종교는 필수!” SB397 발의안 상정되다!

“Religion is Essential Act-종교(기독교)는 필수항목”에 넣어야 한다는 좋은 법안을 적극 지지해주세요! 서명 보내기운동!



길어지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부의 제압과 통제를 가장 심하게 받고 있는 교회들과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드디어 헌법적이고 성경적인 발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발의안 명칭은 Emergency powers: essential services: religious services(2021-2022) Religion is Essential(SB 397)은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인 Brian Jones(공화당)을 통해 2월 11일 드디어 상정 받게 되었지만 코비드 이유로 매우 진행이 느려지고 있기에 서명운동을 펼칩니다.

SB 397 Co-Sponsor과 후원자들

이 발의안은 California Family Council, Capitol Resource Institute and the Judeo-Christian Caucus이 정식 Co-sponsor를 했으며, 그 외에 저회단체 Traditional Biblical Values for Next Gen.(Tvnex-다음세대 가치관 정립&보호) 그리고 그동안 수년간 앞장서서 약법과 싸우고 선한 법을 만들어가는 캘리포니아의 미국 단체들이 연합하여 후원하고 발의할 수 있게 되었기에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발의안을 상정해준 브라이언 존스 상원의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SB 397 “Religion is Essential”이라는 법의 필요성-교회와 세속적 비즈니스에 대한 주정부의 철저한 이중 잣대!

2020년 게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팬데믹 기간 동안 불공정한 이중 잣대로 팬데믹 규칙을 사용하여 교회시설 사용을 막음으로, 신앙신장과 성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신앙모임과 예배모임을 멈추게 하면서 세속적인 사업과 서비스에게만은 교회에 사용한 규칙들을 면제함으로써 교회를 “2등” 지위로 강등했습니다.

SB 397이 통과되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들!

△주지사와 주정부가 팬데믹이나 비상상태가 올 때 더 이상은 이중 잣대로 교회와 교회서비스를 “2등 취급” 하지 못하게 하며 종교 서비스(예배 및 신앙모임)들을 소매 비즈니스들과 동등하게 “필수서비스Essential Service”로 취급하게 합니다.

△비상상황에서 주정부가 비상시 종교 단체들이 종교 단체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비상시에도 종교모임들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비상시 종교 단체들에게만 주로 더 강력한 의무화했던 이중적인 규칙들-건강, 안전 또는 예배인원 숫자 요건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Prohibi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rom enforcing a health, safety or occupancy requirement that imposes a substantial burden on a religious ser-

vice during an emergency △주정부 및 지방 정부의 과잉 연락을 받은 종교단체가 행정 또는 사법 절차에서 구제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Allow a religious organization that has been subject to state or local government overreach to file a claim for relief in an administrative or judicial proceeding.

결론적으로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입니다. 또한, 헌법 제 1조 사항에 의해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며, 교회에 대한 규칙(건강, 안전 등등)들은 교회 리더들의 선택과 결정 아래 이루어져야하지 정부가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은 비헌법적인 것입니다.

반기독교인들이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를 잘못 해석하여 사용하고, 팬데믹 때는 오히려 정부가 완전히 선을 한참 넘어 교회의 행정과 교회에 개간 주어진 권한을 자신들이 빼앗아간 것이기 때문에 SB397은 필수적인 법안인 것이지요.

FAITH IN ACTION!-믿음을 행동으로 취해 주세요! 교회들이 '정부의 통제'가 아닌 '하나님의 통제' 속으로 갈 수 있도록!

1. 교회나 (선교)단체 이름으로 미리 적어놓은 편지를 써서 보내주세요.

SB 397-Religion is Essential Act는 상원 사법위원

(Senate Judiciary Committee)에서 먼저 청문회가 열릴 것입니다.이제는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과 저회 후원단체들뿐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 교회들과 단체들의 목소리를 높여주셔야 통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은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영문 샘플편지는 Tvnex.org에서 다운로드하세요

SB 397 Support 편지보낼주소: Senator Thomas J. Umberg/Chair of the Senate Judiciary Committee/State Capitol, Room 2187/Sacramento, California 95814

2. 교회 / 단체 차원에서 Thomas Umberg 의원에게 보내셨던 편지를 PDF로 저장한 다음 아래에 적힌 방법들 중 편하신 방법을 골라서 곧 공청회가 있을 상원 사법위원회에게 보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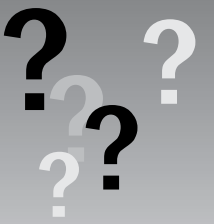
3. 개인적으로도 서명해주세요! 1분도 안걸립니다. 서명링크는 tvnext.org에 가시면 직접 누르시고 서명할 수 있습니다: https://californiafamily.quorum.us/campaign/31113/

4. 공유하기: 반기독교 성향이 깊은 대부분의 민주당이 장악한 캘리포니아에서는 우리 쪽에서 내는 발의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학부모의 울리를 되찾게 하는 SB673 운동을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널리 널리 모든 아는 분들께 권면하시고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도록 도와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org에 가셔서 직접 링크로 가셔서 서명하시면 1분도 안 걸립니다.

SB397 지지 운동을 지역 차원에서 동역해주시실 수 있는 교회나 개인적으로 동역하실 수 있는 분들은 tvnext.org@gmail.com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후진국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선 것은 두 대통령의 공로가 큰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은 이승만 대통령이 확고히 세운 것이라면 경제는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 큼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킨 것인가요?

- 하버에서 이희은

A: 5.16 이후에 박정희 정부는 경제를 앞세워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통계를 보면 박정희 집권기간인 1965년에서 1980년 사이 한국은 연평균 9.9%의 성장을 기록해 국민총생산은 27배, 1인당 소득은 19배, 수출은 275배 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1962년 87달러이던 1인당 소득이 1979년에는 1,674달러로, 5500만 달러이던 수출은 150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국민소득은 이제 3만 달러시대로 접근했고 수출입은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박정희 전대통령은 3차례에 걸쳐 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마무리했고(1962-1976) 마지막 4차 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 계획(1977-81)도중 변을 당했습니다(문장극의 역사읽기, 284-295).

박정희는 1)자급경제가 아니라 수출경제모델을 세웠습니다. 무슨 산업을 하던 자자돈이 있어야 공장을 세울 수 있는데 그 돈이 없었습니다.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박정희가 요구하는 차관을 거절했습니다. 2)박정희는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했습니다. 한일협정으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공공차관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를 받아냈습니다. 이 한일협정은 야당이나 학생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협정이라고 반대했으나 박정희는 3)이 돈 가운데 2억5천 달러로 포항제철을 세웠습니다. 강철의 기반

한일협정 무상지원, 파독 광부 간호원, 베트남전 파병, 기업육성 등으로 경제발전

없이는 기계, 자동차 등 중공업으로 나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없는데 고속도로를 만들면 누가 이를 이용할 것인가? 야당과 지식인들의 주장이었으나 박정희는 포항제철을 통해 중공업을 발전시켰습니다. 4)독일에 간호사와 광부를 파견하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간호사 광부 2만명을 파견하여 월 100달러를 받고 일했고 달리는 귀중한 외화벌이였습니다. 베트남전이 한창일 때 미국이 한국에 주둔중인 미군을 빼내 베트남으로 보내려하자 북한의 위협을 걱정한 박정희는 베트남 파병을 결심했고 파병과 함께 국군의 현대화와 건설수출을 보장받았습니다. 1966년에서 1969년사이의 외화수입은 베트남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베트남 특수는 곧 중동건설 특수로 이어졌습니다. 1977-79년 사이에 사우디 등지에서 205억의 건설수주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5)기업을 키웠습니다. 개인은 투자할 돈이 없으니 국가가 국민들이 예금한 돈을 모아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몰아준 것입니다. 국가의 그러한 혜택으로 재벌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고맙게 여겼고 늘 애국을 생각했습니다. 박정희 주변에는 정주영, 이병철, 김우중, 박태준같은 경제의 인물들이 있었고 그들은 또한 애국자였습니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배웠고 자본을 빌렸으며 일본발전계획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일본으로부터 기술이전이 51%, 미국은 28%였습니다. 제철과 전자, 모든 부분은 일본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배운 것도 있고 몰래 배운 것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발전하는 사이에 문화 혁명으로 낫잡을 자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후에 마오쩌둥이 죽고 덩샤오핑이 집권하면서 한국모델 즉 박정희 개발모델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결국 한국경제를 기반으로 세계선교에 크게 쓰임받게 하였습니다. 한국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엔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 유형 본인구독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 사
영 어: _____ 평 신 도

배 달 주 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 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 달 주 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__년__월__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 Y :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교회)



“나를 밟고 올라서라”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사역 했던 저와 제 아내에게는 제 자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특별하게 기억나는 세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의미 있는 시간을 많이

보냈고 비전을 같이 나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복음 사역을 저보다 오히려 더 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그들에게 “나를 밟고 올라서라”고 말버릇처럼 진심을 전달했는데 그 의미를 잘

알고 귀한 사역자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엔드리”와 “카렐”은 인도네시아 교회의 해외선교와 국내선교를 계속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멜바”는 제 아내의 제자로서 필리핀에서 여자 목사가 되어 미전도종족인 와라이족 교회개척과 지도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엔드리”는 OM사역자로 Doulos 배를 타고 세계 전역을 다니며 사역하다가 마지막 단계는 우크라이나 선교를 마치고 지금은 인도네시아 교회 선교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싱가포르, 홍콩, 한국, 일본에 있는 인도네시아 교회들이 선교에 대하여 깨어나고 해외 선교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카렐”은 단과 방송사역을 하다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지에

있는 파푸아 지역에 있는 방송국에 진출하여 여러 개의 지역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단과, 중과 방송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사람을 만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매개체를 사용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멜바”는 지도력이 뛰어난 여자 목사입니다. 필리핀은 여성이 남성들보다 더 능력이 되면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입니다. 지금도 남편 목사와 함께 필리핀에서 가장 낙후되고 어려운 사마르 지역에서 와라이 종족 교회 개척과 함께 와라이 지도자를 키워내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의 제자들이 저희 부부에게 소식을 보내줍니다. 카렐은 신학교 졸업 후 제가

양자로 삼았고 대리부모가 되어서 결혼을 시켜주었기에 그 자녀들은 저와 제 아내를 할아버지/할머니 라고 부릅니다. 60이 넘도록 아직 머리가 희어지지 않은 제가 틈에이저 손자, 손녀를 두고 그들의 이 름도 저와 제 아내 이름을 따서 부르니 여전히 어색하기만 합니다. 한번은 카렐의 가족들이 기타와 드럼으로 가족찬양을 한 동영상을 보내주었는데 얼마나 감동되는지 선교지에서 어려웠던 시간들을 다 보상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멜바는 이제 그 자녀들도 아 빠, 엄마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교회사역에 참여하고, 찬양인도를 하고, 현지 교회지도자 세미나를 위해서 가족이 함께 팀으로 움직입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

는 것이 또 하나의 감동과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렇듯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치 있는 사역입니다. 그 복음이 가진 능력은 한 가정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그 자녀들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도록 만듭니다. 저는 영생의 가족들이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영원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말씀과 교제는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는 또 제자를 키워내는 영적 재생산을 하는 것은 자연스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gypac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1900년전 성경사본, 이스라엘서 발견

이스라엘에서 1900여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성경 사본 조각(사진) 등을 찾아냈다고 현지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성경 사본 조각은 예루살렘 남부 사해 인근 유대 광야 동굴에서 발굴됐다.



20여개의 양피지 조각에는 구약성경 소선지서인 스가랴 본문(8:16-17)과 나훔 일부 구절(1:5-6)이 그리스어로 적혀 있다. 내용 중 하나님의 이름은 고대 히브리어로 적혀 있다고 이스라엘 문화재청은 밝혔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스가랴와 나훔에서 주로 쓰인 히브리어 하나님 이름은 ‘야웨(YHWH)’이다.

발굴팀은 이 조각들이 로마제국에 대항한 유대 항쟁 운동인 ‘바르 코크바의 반란’(132-135년) 당시 이 동굴에 숨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본 조각이 발견된 동굴은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군의 공격을 피해 은신했던 장소로 추정된다.

사해 서쪽 동굴에서 발굴된 구약성경 사본과 유대교 관련 문서들은 ‘사해문서’(Dead Sea Scrolls)로 불린다. 1947년 쿨란 동굴에서 발견한 사해사본이 가장 유명하다. 이후 1950년대까지 발견된 사해사본은 히브리어 성경 전체가 거의 완전하게 보존된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사해사본이 기록된 연대는 기원전 3세기부터 1세기경으로 추정된다.

학자들은 이번에 발견된 그리스어 사본 조각과 구약성경의 그리스어 번역 성경인 ‘70인역’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발견된 조각에 쓰인 단어들을 70인역 단어와 비교·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후구 서울장신대(성서고고학) 교수는 17일 “쿨란 문서 안에는 히브리어 성경 사본뿐 아니라 그리스어 사본도 존재했다”며 “이는 당시 유대 사회가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스어를 공통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발굴팀은 성경 사본 외에도 1만50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바구니와 6000년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라화한 여아 사체, 동전 등도 찾아냈다.

청년들이 교회에 바리는 2가지 ‘진정성과 포용’

20대 청년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진정성’과 ‘기성세대의 포용’이란 분석이 나왔다.



미국 기독교 여론조사기관 라이프웨이리서치의 아론 엘스 수석에디터는 최근 ‘청년들을 붙잡아두는 교회의 10가지 특성’을 분석해 발표했다. 23-30세 성인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존 결과를 인용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청년들이 성인이 돼 교회를 떠나는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신뢰와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위선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사에서 어릴 적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교회를 떠난 청년 중 37%가 교회와 교인들에

게 진심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41%는 교회와 교인들을 ‘위선적’이라 평가했다. 교회와 교인들이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한 비율은 32%에 불과했다. 엘스 에디터는 이를 “다음세대는 교회의 완벽함보다 정직과 고결함을 원한다”고 분석했다.

교회를 떠난 청년의 36%는 청소년기에 다닌 교회 사람들이 직업, 학교, 결혼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못마땅해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답했다. 엘스 에디터는 “다음세대는 삶을 결정할 순간 기성세대의 냉철한 판단과 지적보다 시간을 투자해 사려 깊은 대화를 나누며 지지를 보내주길 원한다”며 “청년들을 정죄하기보다 용서하고 격려하며, 영적 성숙과 감동을 체험하도록 돕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믿음 확산 돕는 소설가 25인은?

제인 오스틴과 GK 채스터턴, 앤드 슈사쿠와 CS 루이스 등이 기독교 신앙을 성찰하도록 돕는 위대한 소설가 25인에 꼽혔다.



미국 복음연합(TGC)은 ‘예술로 하나님 발견하기’의 작가 테리 글라스피가 기고한 글 ‘믿음을 확산할 수 있도록 돕는 25인의 소설가’를 홈페이지에 최근 공개했다. 글라스피가 선정한 25인에는 ‘오만과 편견’을 쓴 영국 작가 오스틴과 영국 추리문학의 거장 체스터턴, ‘침묵’을 쓴 앤도와 ‘나니아 연대기’의 루이스, ‘반지의 제왕’ JRR 톨킨 등 국내에도 잘 알려진 저자가 포함됐다. 레오 톨스토이,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등 러시아 대문호 역시 25인에 올랐다.

글라스피는 오스틴의 작품을 “높은 도덕적 이상을 추구하지만 설교조라거나 감상적이라는 느낌은 전혀 없다”고 평했다. 그는 “오스틴은 인간관계와 사회계층제도의 복잡성에 관한 예민한 관찰자였다”며 “‘오만과 편견’ ‘센스 앤드 센서빌리티’로 그의 작품 감상을 시작해보라”고 권했다.

체스터턴에 관해선 “그의 영웅적 신앙과 놀라운 관찰력은 독자로 하여금 책장을 술술 넘기게 만든다”고 언급하며 작품으로 ‘목요일이었던 남자’와 ‘브라운 신부 시리즈’를 추천했다.

앤도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소수 종교인 일본 문화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글을 쓴 앤도는 신자와 비신자 모두에게 호평받았다”고 평가했다. 그의 작품 ‘침묵’에는 “종교 박해와 순교를 낭만적으로 묘사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SBC, “평등법은 근본자유 침해” ...

미남침례회(SBC) 산하 단체 윤리및종교자유위원회(ERLC)가 평등법은 권리장전에 보장된 근본적 자유와 배치된다고 경고했다.



최근 웹스터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ERLC는 17일 ERLC는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가 주최한 ‘성적 지향성과 성 정체성을 추가 평등법(H.R.5) 청문회에 서면 증언을 제출했다.

ERLC는 해당 서면에서 이 법안에 대해 “동성애자 및 트랜스젠더에 아무런 반감이 없는

수백만 미국인을 불필요하게 처벌하고 차별할 것”이라며 “종교적 자유에 전면적이고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근본적 자유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회가 통과시킨 낙태 찬성 법안 중 가장 강력한 법안”이라며 “여성과 소녀들을 위해 수십 년간 치열하게 싸워온 시민권 보호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ERLC에 따르면, 이 법안은 ‘성’을 ‘임신, 출산, 또는 관련 질병’으로 재구성하여, 낙태 시술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의료 종사자의 양심적 권리를 침해한다.

이어 평등법은 “신앙 기반 아동복지단체(결혼 및 가족과 같은 문제에 대한) 깊은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거나 폐쇄하도록 강요할 것”이라며, 만일 의료계 종사자가 성전환 시술 수행을 거부할 경우 “그들의 직업을 잃게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ERLC는 평등법이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을 “명시적으로 축소시킬 것”이라 예상했다.

1993년 미국 의회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이 법은, 정부가 개인의 종교 활동을 제한할 경우에는 가능한 최소한의 수단만을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러셀 무어(Russel Moore) ERLC위원장은 60명 이상의 친생명(Pro-Life) 단체 지도자들과 함께 별도의 서한을 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서한은 평등법이 1973년 미국 전역에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친생명운동에 가장 큰 차질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평등법은 지난 2월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투표에서 찬성 224 반대 206으로 통과됐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승인한 상태다.

다만 상원에서 법안을 ‘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없이 투표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지만, 양당 의석수(50대 50)로 인해 통과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시아계 중요 범취라” 주말 미 곳곳서 시위

미국 전역에서는 주말 내내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증오를 멈춰달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한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애틀랜타 총기난사 사건 이후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와 차별에 침묵하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애틀랜타를 비롯해 뉴욕과 시카고,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20일 이번 사건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애틀랜타 주 의회 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는 한인들을 포함한 시민과 활동가 등 수백 명이 모였다. 이들은 총격사건 피의자 로버트 엘런 롱(21)의 범행으로 숨진 희생자 8명 중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를 멈춰라”, “아시아인들은 바이러스가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집회에는 한국계 여배우 샌드라 오가 깜짝 등장해 연사로 나섰다. 그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다. 아시아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면서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두려움과 분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매와 형제들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달라’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지 경찰이 용의자인 백인 남성 로버트 에런 롱(21)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성 중독’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한 분노도 이어졌다. 사건의

본질을 감추기 위한 미국 경찰의 시도가 아시아계 여성들을 성적 대상으로 격하시킨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작가이자 음악인 리와그 디슨은 AP통신에 “내가 성매매 종사자이거나, 필리핀계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난당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내가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다”면서 “나이가 많았던 상사는 성 관계에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의 한국계 일리언 김 명예교수는 “미군이 아시아 지역에 주둔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아시아 주둔 미군은 오랫동안 불법적인 성매매 논란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뉘트거스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난해 12월 텔레그램 등에서의 아시아계에 대한 모욕이 이전 11개월의 평균과 비교할 때 65% 급증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총격 사건 직후 아시아계를 비방하는 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4%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처음 등장한 지난해 봄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분위기가 증가하기 시작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2차 확산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3번 ‘삐끗’ 영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용기에 오르면서 세 번이나 발을 헛딛는 영상이 SNS에서 화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9일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가기 위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했다. 그는 전용기 임무로 연결된 계단을 열 걸음 정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뎠다. 오른손으로 계단 난간을 잡고 있어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두어 걸음을 걸다가 또 계단을 헛디뎠고, 일어서려다 힘이 빠졌는지 무릎을 꿇으며 넘어졌다. 난간을 붙잡고 일어난 그는 먼지가 묻었는지 바지를 털었다. 계단 끝까지 올라가 뒤돌아선 뒤 경례를 하고 기내로 들어갔다.

이번 일과 관련해 백악관 측은 “바이든 대통령은 100% 괜찮다. 바람이 매우 많이 불어 나도 계단을 오르다 넘어질 뻔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넘어지는 순간을 패러디한 영상과 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백악관 측이 바이든 대통령이 넘어진 이유를 “강풍 탓”이라고 한 것을 비꼬아 “바람 때문이라고?”라는 제목의 짧은 동영상 올리기도 했다.

영상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골프채로 스윙을 하자 날아온 공이 바이든 대통령의 뒤통수를 때리며 넘어지는 식으로 보여진다.

이밖에도 넘어지는 순간을 스포츠의 한 장면으로 합성하거나 배경을 우주로 하는 등의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78세의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고령자다. 후보자 시절부터 건강 문제가 주요 관심사였다. 그는 지난해 11월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오른쪽 발에 미세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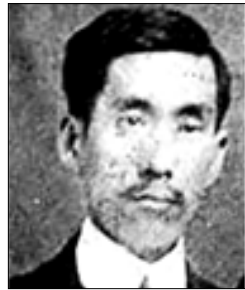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17. 김유탉(1877-?)

김유탉(金裕澤)은 1887년 황해도 안악 신천에서 김영식 전도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18세 때인 1905년에 그는 노동이민자로 하와이로 떠나는 아버지를 따라 하와이로 갔다. 그는 1949년에 감리교 제9대 감독을 지내 김유순 목사의 동생이다.

하와이에 도착한 이듬해인 1906년 12월에 김유탉은 호놀룰루에 있던 한인기독교회에 재학했다. 하와이에서 공부하던 이성철과 김수권이 이어 김유탉은 이듬해 5월 28일에 상항으로 이동했다. 그다음 달초에 그는 공립협회 상항지방회에 가입했고, 6월 9일 주일학교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이교 담과 오대영과 함께 연설하였을 때 참석자들의 마음을 격발하였으므로 그해 7월에 김유탉이 이교담, 장나득, 이병역과 함께 상항지방회 평의원으로 선임된 것 같다.

15장 4절 뜻으로 영어 강도하고 양주삼씨가 한어로 번역함에 전 회가 대단 감동하였으 며, 감리교회 부인전도회 회장이되는 부인도 기쁜 것을 표하여 연설하였다하며, 불구에 한인 전도사도 정하며 야학도 실시한다 는데 아직은 정인표, 김유탉씨가 인도 한다더라”



김유탉(1916년)

삭도한인감리교회가 창립되던 날

를 알게 된다. 그달 3일 통상회에서 대의원에 황사용과 정인표가 피선되었고, 윤경학과 박성태가 부회 평의원으로 선임되었다.

김유탉이 그해 12월 28일에 상항을 방문했다. 상항 공립관에서 '나라를 강하게 하려면 군사를 양성하는 것보다 학자를 양성하는 것이 옳다'는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는데 찬성편에서 김유탉이 연설했고, 반대편에서 조순옥이 연설했다.

1908년 1월 7일에 삭도한인감리교회를 김유탉과 함께 섬기던 정인표가 타지로 이주하여 그의 빈자리를 채우며 본 교회를 섬기는데 김유탉이 바빴을 것이다. 그런데 그해 2월 5일 주일 저녁에 김유탉이 상항 한인청년회에서 전명운과 함께 연설하였는데 전명운은 '모험시대'에 관해서 김유탉은 '서사건국'에 관해서 연설하였으니 그에게 삭도한인감리교회 목회에서 이만한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다.

그해 5월경에 삭도한인감리교회는 예배당을 옮겼다. 그동안 삭도에 예배실과 공립대동양회와 여관 등 한인의 집이 3처에 나누어 있었는데 큰 집 하나를 세어 위와 세 집이 모두 모였다. 그달 20일 자 공립신보는 이를 두고 삭도 한인들이 "매우 아름답다 하더라"고 전했다. 그달 13일 자의 공립신보는 '장지 전도'라는 제하에서 "동포 장원근 씨는 삭도그라멘토지방에 있는 한인 교당 전도 사무를 담임하여

인 선교 책임자로 임명하고 신흥우를 한인 목회자로 파송했다.

김유탉은 사우스 힐 스트리트 1519번지의 한인기독교사에 입주했을 것이다. 그도 다른 한인 기숙생들과 더불어 주일 아침에는 나성 제일감리교회 영어 예배에 참석하고 곧이어 서면 선교사가 인도하는 주일학교에 참석했으며, 토요일 엠넷 청년회와 금요일 성경공부반 그리고 매일학교에서 활동하였다. 특별히 김유탉은 주일 오후 한인 예배처소에서 한국어 주일 예배가 있었는데 몇몇 설교자 중 한 사람으로 사역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그의 설교사역은 예배처소가 메그놀리아로 옮겨가면서도 계속되었을 것이다. 1909년 3월 김유탉은 전시중과 박윤목과 함께 중학교에 입학하더니 이듬해 23세 나이로 김유탉은 네브라스카의 헤이스팅스에 있던 박용만의 한인 소년병학교에서 하기 군사훈련을 받았으므로 그의 나성 설교 사역은 1908년 11월부터 1910년까지 약 1년 8개월로 본다.

에모리 의과대학

김유탉은 조지아주에 소재한 린카트 대학에 입학하여 1912년에 졸업하면서 그의 의사가 되는 학업은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이듬해에 그는 같은 주에 있는 에모리 대학에 입학했고, 1915년 여름에 본 대학을 졸업했다. 졸업한 그해에 그는 에모리 대학 의과

에 누아누 청년회 부이사장 겸 통신원, 그해 4월에 하와이 대한민족 통일축성회 위원, 그해 10월에는 엠넷 청년회 토론회의 심사위원, 이듬해 8월에 150여 명이 모인 범태평양학회에 참석한 태평양연안 각국대표 중 한 사람, 다음 달에 대한학업생과 실업가로 조직된 '무공화구락부' 이사, 그다음 달에 이순만 등과 함께 하와이 대학에 한국어와 한국 역사에 관한 과목을 신설하기 위한 '한국 국어문화 및 역사위원회' 회원, 1930년 9월에 '호황 청년회'의 임시 사교위원 등을 역임했다.

의학공부를 하기 전부터 나병에 관심을 가졌고, 칼리나 나환자 입원소를 자주 드나들었던 김유탉은 일반 진료를 보면서도 피부병 환자를 많이 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호놀룰루 에드버타 이지는 1953년 9월 18일 자에서 하와



사우스 힐 스트리트 한인 기숙사 (서면 선교사가 오른쪽 첫 번째에 서 있다)

이 보건국이 김유탉 박사를 나병환자 주치의로 임명하였다고 보도했다. 데미안 신부 동상 옆에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미국 국회가 하와이 영토에 자유와 민주주의 기념으로 보낸 자유의 종을 건립한 지 3년이 되던 때다.

데미안 신부에 이어 떠난 신부가 몰로카이 나환자 수용소로 불렀던 칼라우과에서 1931년에 88세의 나이로 하늘의 부름을 받기까지 한국인 환자도 돌보았다. 1906년에 최초로 한인 환자를 받은 이후 1909년에는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청한 한인 환자를 귀국 조치했다. 1917년에는 10명의 한인 환자가 있었는데 이 중 1904년 17세에 하와이 노동이민자로 와서 결혼하여 행복을 찾던 중 1915년에 이곳에 와서 1917년 5월 30일에 신부전증에 정신이상 증세로 이 땅을 떠난 김씨의 장례를 집례했다. 1923년에는 한인 나환자수가 15명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1925년 6월 19일에 들어와 그해 10월 24일에 익사한 54세의 한인도 하늘로 보냈다. 1941년 12월 월말 보고서에서 한인 2명이 요리사로 1명은 노무직으로 일했으나, 1953년 김유탉은 떠난 신부를 이은 나환자의 사역자로 변신했다.

김유탉은 형 김유순 목사의 유고를 기리고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김유순 장학금'을 설치하고 기부했다는 형제 사랑의 소식 이후 그의 자취는 문했다.

damien.sohn@gmail.com

삭도한인감리교회, 나성한인감리교회서 설교사역

1919년 에모리의대 졸업 후 의사로...1921년 귀국불가 듣고 하와이로 1953년 하와이보건국이 나병환자 주치의로 임명

작일에 해 지방으로 전방하였다더라"고 보도했다. 이로써 김유탉의 사역은 1907년 10월 13일부터 1908년 5월 12일까지이다. 약 7개월간이었다.

나성한인감리교회 설교자

김유탉이 "충혜한 재질이 연배 종교조라 청년 학계에 소망이 많은 터였는데 학비가 없으므로 아직 공부에 전력하지 못하고 상항에 두류하였는데" 1908년 8월에 유지한 동포들이 의논하여 그를 미국 동방으로 보내 학업을 전심하도록 정국현이 발기하여 학비를 모금하는데, 그는 자기 힘이 닿는 대로 도와주기로 하였고, 이용주는 5달러를 기부하였다. 중가주 프레스노에 잠시 거주했던 김유탉은 그해 11월에 최정준과 김대성과 함께 로스앤젤레스(나성)로 이주했다.

내한 선교사였던 프라시스 서면 여선교사의 주선으로 미국 남감리교 남가주 연회는 1904년 3월에 나성에 거주하던 한인 유학생과 한인 이민자를 위하여 나성한인감리교회와 한인기숙사를 설치하고, 서면 여선교사를 한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였고, 1919년 2월에 졸업했다. 졸업한 그는 보스턴 시립병원에서 인턴을 지냈고, 뉴욕 이티카 웨스턴 병원과 버팔로 뉴욕 결핵병원에서 전문훈련을 받았다.

1921년 6월 28일에 170여 명이 모인 실버보이 청년학회에 김유탉이 이병두, 이병민 그리고 이공선과 참석하였다. 본 학회회 강사였던 에디 씨의 '인생의 세 가지 직분'이라는 연설에서 천부를 찾고, 자신을 찾고, 동족을 위하여 일함에 대하여 듣고 난 후 개인상담을 청했는데 한국 귀국은 스스로 선택할 몫이라는 대답을 받았다. "한국에 돌아가 중생을 구제하는 자선사업에 헌신할 터"였으나 한국 감리교 감독 할버트 웰치 목사와 한국어에서 사역하던 F.H. 스미스 선교사의 한국 입국 불가라는 제안에 고민하다 김유탉은 귀국을 포기했다.

하와이 나환자 주치의

김유탉은 제2의 고향인 하와이 호놀룰루로 돌아가 의사로 활동하면서도 다양한 모습을 띠었다. 1928년 1월

삭도 한인감리교회 예배인도자

1907년 8월에 김유탉이 정인표와 윤경학과 함께 새크라멘토(삭도)에 공립회관이 설립되는 대로 학생을 모집하여 공부하기를 꾀하더니 그해 10월에 삭도로 이주했다. 그달 10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 상항 한인전도사 양주삼과 함께 김유탉이 삭도 백인감리교회 부인전도회 총회에 초대받았는데 양주삼은 미주한인 상황과 교회를 소개하여 남부 백인들의 박수를 받았고, 김유탉은 한국말로 찬송을 불러 그들에게 호감을 샀으니 이즈음 그는 교회 사역자로 택함을 받은 듯하다.

삭도한인감리교회가 창립되기는 1907년 10월 13일 주일이었다. 김유탉은 이날 삭도한인감리교회 예배인도자로 부임했다. 1907년 10월 17일 자의 공립신보는 본 교회 창립의 정황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새크라멘토에 한인회당이 설치된 것은 전 호에 기재하였거니와 금월 13일 오후 3시에 처음으로 미션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한인 참석자가 21인이요, 미국 손님이 18인이며, 감리사(미국인) 이 덕 박사가 요한복음

삭도지방회가 조직되었고, 김유탉은 본 지방회 서기로 선출되었다. 그날 선출된 회장 김경함, 부회장 신순만, 회계 윤경학, 학무 정인표, 경찰 임애중, 사법부 김중환과 우경식, 응징부 김윤태와 송동선, 사무원 김윤택 그리고 간사 우경식 중 대부분은 삭도한인감리교회 교인이었을 것이다. 같은 날 공립신보에 보도한 '삭도 야학'에서 "서양 교사를 청하여 영어와 작문을 진실히 교수한다더라"고 보도하였다.

교회 사역에는 위의 야학뿐만 아니라 토론회도 있었다. 같은 날에 양주삼 전도사가 다시 삭도한인감리교회를 방문했으니 그의 인도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이날 양주삼의 방문에 동행한 황사용이 삭도로 이주했으며, 새로 회원이 된 신영구와 함께 위의 3명을 위한 환영회가 있었는데 앞서 두 명의 고상한 연설에 모인 자들이 귀를 기울였다. 위의 황사용과 신영구가 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달 15일에 보도한 삭도 회보에 따르면 교인들의 삭도 지방회 참여도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청년회: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9:30(화-토) 평일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금·요예배: 오전 9:30(화-토)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Tel: (213)381-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2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Tel: (714)446-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1:20 영인권 (참사+KDC, 킴덤+김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성인영양예배: 오전 6:00(화-토) 금·요예배: 오전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환 팩스 겸용), Tel: (213)210-688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Tel: (714)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한국어)찬양: 오후 7:00 금·요기도: 오후 7:30 Tel: (213)381-2202, www.mpcj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화-토) 새벽기도: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 90717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626)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인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Tel: (714)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셉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전파선교회 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00-오후 4:00(본당) 사역대상: 1. 미혼여성 2. 고령성도 여성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 3. 말세사역 4. 네트워킹 사역 http://www.elpis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6:00(토) 은혜새가족도전대: 365일 24시간 운영 Tel: (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새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인)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성경대망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Tel: (714)749-4500, www.gccj.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수·요예배: 오전 5:30(화-토) 새벽기도: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rtony.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2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cgo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핼(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이훈우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한미예배: 오후 1:00 교육부: 오전 11:00 Tel: 213 924-3340, pimisun1004@gmail.com 2533 Honolulu Ave # 4 Montrose, CA 91020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주일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어성일이 어찌재'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34)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의 “신학의 정수(A Marrow of Theology)” (6)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클린제일교회)



3. 그의 영향력

1) 뉴잉글랜드에서의 영향
 ‘신학의 정수’는 뉴잉글랜드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다. 뉴잉글랜드에서 이 책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의 칼빈주의 신학을 가장 잘 정리해놓은 책으로 간주되었다. 이 책은 프랜시스 투레틴(Francis Turretin, 1623-1687)의 ‘변증신학 강요’가 등장한 18세기까지 하버드와 예일대학의 필독서였다. 토머스 후커(Thomas Hooker 1586-1647)와 잉크리스 매더(Increase Mather 1639-1723)는 ‘신학의 정수’를 건전한 신학자를 만드는데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으로 추천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책 복사본에 엄청난 난외주를 달아 놓았고, 에임스에게 힘입은 내용에

잉글랜드 청교도들은 칼빈을 인용하는 것보다 더 빈번하게 에임스를 인용하였다. 잉크리스 매더는 ‘현학적인 지혜와 신앙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동시에 구비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에임스가 바로 그 두 가지를 구비하였다고 말했다. 코튼 매더는 에임스를 ‘심원하고 엄숙하고 명석하고 확고부동하며, 동시에 천사 같은 박사’라고 지칭하였다.

2) 네덜란드에서의 영향

그의 ‘신학의 정수’는 네덜란드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히스베르투스 보티우스(Gisbertus Voetius 1589-1676, 원칙에 충실한 삶으로서의 경건을 주장한 화란의 칼빈주의자의 화란 유티레흐트 대학(Utrecht University) 동료 교수인 마티아스 네데누스(Matthias

의 경건주의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즉 마스티라히트가 그의 책 ‘이론과 실천신학’을 통하여 신학적 주제를 주석적, 교리적, 변증적, 실천적 4단계로 연구하고 가르칠 때, 그는 특히 에임스의 언약적 사고와 의지중심주의(Voluntarism, 主意主義)에 크게 끌렸던 것이다. 에임스의 거의 모든 책은 네덜란드에서 출판되었고, 그 중 많은 책이 국제학술단체를 위해 라틴어로 출간되었다. 그의 신학과 의지중심주의가 네덜란드에서 그의 회중교회 임장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에임스는 퍼킨스의 가장 유력한 제자이자 진정한 상속자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인 영국에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에임스의 주요 작품들은 광범위

다. 물론 에임스의 강조점은 의지에 있었다. ‘참되고 적절한 신학의 주제는 의지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충실한 아들로서 에임스는 계속 ‘신앙의 최종적 의지는 성령의 작용과 내적인 설득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그의 의지에 대한 강조는 신학적으로 신앙과 순종의 조화가 라는 맥락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그는 프라네커 대학의 동료 교수들과 철학 및 신학 논쟁 속에서 이런 사상을 정립했고, 그 결과에 이 사상은 17세기 네덜란드의 정제된 교회에 대한 생명력 있는 경건을 다시 심어주기 위한 그의 노력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신앙이든 실천이든 자체만으로는 전혀 충분하지 못하다. 신앙이 실천과 분리되면 ‘냉랭한 정통주의’로 나아가고, 의지와 선행만을 따로 강조



변명혜 박사

(아주사서시립대학교 교수)

봄맞이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다. 지난 주 내린 봄비와 함께 산과 들이 어느새 파릇파릇한 웃음으로 살아났다. “봄처럼 제 오시내, 새 풀을 입으셨네...”로 시작하는 “봄처럼”이라는 가곡의 가사처럼 새 풀웃으로 단장을 한 것이다. 멀리 보이는 언덕은 군데군데 유채꽃으로 노랗게 물이 들었고 각종 들꽃도 활짝 피어났다. 나에게 봄은 우리 집 앞마당에 해마다 피어나는 한 송이 꽃과 함께 찾아온다. 수년 전에 몇 포기 사다 심은 이팝나무 기어 못하는 꽃이다. 다른 꽃들은 그 해에만 피고 끝났는데 이 한 포기만 살아남아서 해마다 봄이 오면 잔디를 헤치고 나와 수줍게 꽃을 피운다. 반가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꽃에 꽃을 인사할 건넨다. “어머, 언제 피었는지 살아 있었구나! 또 찾아와 주어서 고맙다.” 땅에 닿을 만큼 낮은 키의 작은 꽃 새 송이가 예쁘게 피더니 한 달 만에 꽃은 다 떨어지고 이제는 잎만 남았다. “그래, 올해도 살아서 꽃을 피워주어서 고맙습니다. 내년엔 꼭 또 보자”하고 작별 인사를 한다.

자연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운다. 무엇보다도 봄은 강한 생명력을 생각하게 한다. 땅속에 심긴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잎도 나고, 꽃을 피우는 살아 움직이는 그 힘이 참 놀랍고도 귀하다. 바쁜 삶 속에 텃밭은 꿈도 못 꾸고 지나가다 작년 봄에 재래근무를 하게 되면서 상추, 토마토, 아욱을 몇 포기씩 심었다. 어린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기쁨이 몇 되지 않았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위기가 되었다고 나 할까? 올해도 친구가 준 호박씨 두 개를 화분에 심고 며칠 기다렸더니 떡잎이 나왔다. 똑 같이 심었는데 하나는 싹이 일찍 나오고 다른 하나는 꾸물거리며 천천히 나왔다. 늦게 나온 떡잎은 씨앗 고깔을 머리에 며칠 동안 달고 있었다. 아마도 고깔을 떨쳐 버릴 만한 힘이 모자랐을까? 먼저 나온 떡잎은 씩씩한 청년, 나중에 나온 떡잎은 얌전한 아가씨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심겨진 씨앗이 각각의 여건에 맞게, 가장 알맞은 시간에 흙을 뚫고 나와서 자리를 잡는 것을 본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기도제목 앞에서 조바심하는 내 모습이 부끄러워진다.

또한 봄은 낮은 곳부터 찾아온다. 산책길에서 그동안 별 생각 없이 지나치며 바라본 언덕이 밑에서부터 파릇파릇하게 변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가을었던 땅에 비가 내리고 낮은 곳으로 물이 모이니까 언덕 아래에서부터 풀이 올라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가장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위쪽으로 푸르름이 올라오는 언덕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 은혜의 물도 낮은 곳에 흐르기 때문이다. 높은 곳에 자리 잡은 교만한 마음보다 낮은 곳에 있는 가난하고 상한 마음, 공허한 마음을 축축이 적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말씀이 주는 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영혼, 주님 한 분만이 삶의 소망이 됨을 고백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생명의 물로 적셔 주실 것이다.

숫구쳐 오르던 코로나바이러스 통계와 함께 곁에 있는 사람들의 감염, 또 소천소식으로 잔뜩 위축되고 지쳤던 겨울이 지나갔다. 이제 새싹이어나는 봄에는 소망을 갖고 새로운 것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부활절을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봄에 맞이한다는 것이 더 없이도 감사하다. 옛날 어머니의 봄맞이 준비는 겨우내 덮었던 이불을 햇볕에 내어 말리고, 집안 구석구석 봄맞이 대청소로 시작하시던 생각이 난다. 나도 조용히 그러나 강한 생명력을 지닌 채 다가오는 봄을 맞이 위해 구석구석 마음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봄맞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lpyun@apu.edu

‘하나님, 교회, 세상에 대한 청교도사상 요점’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선언 신앙과 실천 사이 적절한 균형...이 열쇠는 순종을 언약 안에 두는데 있어

대해 감사했다.

뉴잉글랜드에 미친 에임스의 영향은 이 책뿐 아니라,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도 크게 드러났다. 에임스의 교회론 작품도 뉴잉글랜드에서 비분리주의 회중교회 운동 곧 매사추세츠 베이 식민지(Massachusetts Bay Colony)의 회중교회들이 영국교회와 분리되는 것보다 영국교회의 개혁을 추구하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운동의 기초를 놓았다. 1648년 케임브리지 강령(Cambridge Platform, 미국 회중교회의 헌장)은 특히 에임스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에임스의 청교도 라무스주의가 크게 수용되어 뉴잉글랜드 청교도운동의 특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존 코튼(John Cotton 1585-1652), 잉크리스 매더(Increase Mather 1639-1721), 코튼 매더(Cotton Mather 1663-1728)와 같은 뉴

Nethenus 1618-1686)에 따르면, ‘영국에서 실천신학에 대한 연구가 놀라게 활성화되고, 빌렘 텔링크(Villem Teelinck 1579-1629)와 에임스 시대로부터 네덜란드의 교회와 학교들의 관심사였던, 실천신학에 대한 연구가 획기적으로 번성했다’고 말했다.

베넬대학의 교회사 교수 카이트 스프링거(Keith L. Sprunger)는 에임스의 공헌에 대해 “지성적이었지만 충분히 적용되지 못하였고, 네덜란드 사람들을 청교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그들의 청교도 경건을 촉진시켰다”고 평가한다(Harvard Theological Review 59, 1966).

에임스는 보티우스 뿐만 아니라, 피터 반 마스티라히트(Peter van Mastricht, 1639-1706,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의 신학을 유용성 면에서 투레틴의 책을 크게 능가한다고 평가한 네덜란드

하게 보급되었고, 17세기 전반에 걸쳐 영국의 칼빈주의 신학에 영향을 미쳤다. 에임스의 책은 특히 청교도들에게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 토마스 굿윈(Thomas Goodwin 1600-1680)은 ‘에임스 박사의 ‘신학의 정수’를 ‘성경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책’으로 생각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결어: 은혜와 순종

에임스는 개혁과 정통주의의 경험적인 기세가 수그러들기 시작했을 때, 이 사상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쓰임 받은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개혁과 사상과 생명력을 다시 일으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언약에 근거한 순종은 기독교적 양식에 속한 행동주의이다. 이런 양식의 행동주의는 단순한 의지중심주의(Voluntarism, 主意主義)가 아니

하게 되면 알미니안주의로 빠진다. 이에 그는 신앙과 실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위하여 크게 애썼다. 이 균형의 열쇠는 순종을 언약 안에 두는데 있었다.

그는 이 언약 안에서의 순종을 자신의 언약신학체계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으로 규정하였다. 이 근거가 없으면 에임스의 체계는 그냥 무너지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의지중심주의 자체는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비록 정의가 행위와 순종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고 해도, 신자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은 진정한 언약적인 삶과 기독교 자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성경적 진리를 확증한 것이다.

(13면으로 계속)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h3>		<h4>뉴욕갯세마네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일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p> <p>Tel. (516)520-2004, www.nygetse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신국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일기도: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57-9199, www.moakyang.org 12-23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h4>뉴욕부르크클린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영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02:00 주일예배: 오후 08:45 금요일기도: 오후 08:45 금요일기도: 오전 05:30 성일훈련: 오전 10:00(화,토)</p> <p>Tel. (718)265-2584, www.i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4>뉴욕새벽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생명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운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예 예배: 오전 10:45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p> <p>www.cpcof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성희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기도: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4>리빙스턴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전일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h4>베이스айд 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식 청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 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 저녁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안교특별찬양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p> <p>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 St. Bayside, NY 11361</p>	<h4>사랑의동산교회</h4> <p>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p> <p>Tel. 516)433-0862 8 Duffey Ave., Hicksville, NY. 11801</p>	<h4>어린양 개혁 교회</h4> <p>담임목사: 유승래 EM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p> <p>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p> <p>Tel. (845)848-2013</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토)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후 1:45(토) 청년예배: 오후 3:10(토)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후 1:4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 오전 6: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h4>맨큐버빌라델비아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00(화-토) 오전 6:30(토) 금요일기도: 화일, 목, 금, 토 금요일양육: 화일, 목, 금, 토 금요일양육: 화일, 목, 금, 토</p> <p>Tel. (804)584-5780, www.pc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p>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종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기도회: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4>하와이 행복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성경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4>멕시코 현지인 교회</h4> <p>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빈첸시오대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교 교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p> <p>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최근 사람들이 전기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도 하고 동네 마켓도 보고 운동도 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자전거가 있으면 좋고 유용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로부터 500와트 모터에 21단의 기어가 부착된 전기자전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수동모드, 스로틀모드, 전기모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탈 수가 있습니다. 수동모드는 일반 자전거처럼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페달을 밟고 타는 것이고, 스로틀모드는 자신이 페달을 밟으면 전기모터도 동시에 작동하여 자신의 힘과 전동기의 힘이 동시동력으로 움직여 타는 것이고, 전기모드는 순전히 전기모터의 힘으로만 타는 것입니다.

전기자전거를 조립한 후 얼른 타보고 싶어서 옷을 갈아입고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길은 대체로 평평한 길인데, 중간에 약간의 언덕길이 있습니다. 평소

일반자전거로 타고 올라갈 때 조금은 힘이 부쳐지는 언덕길입니다. 평탄한 길은 기어를 이용해서 타고 가다가 언덕길을 만났을 때 전기모터의 힘을 도움받기로 하고, 스로틀모드로 전환하여 언덕길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스로틀모드로 전환하고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자전거가 너무나 쉽게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자전거 페달에 별로 힘을 주지 않아도 자전거가 언덕길을 손쉽게 올라갑니다.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힘들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하게 되면 참으로 쉽구나!"

우리의 믿음 생활과 봉사 생활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힘이 듭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믿음과 봉사 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가진 자

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일을 하려고 하고, 자신의 힘에 부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내 의지와 감정에 따라서 내 능력으로 믿음 생활과 봉사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생활과 봉사 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입니다(마28:20).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섬김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는 축복입니다(요14:16-17).

믿음의 성도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하고 계시고, 능력의 성령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는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우리의 삶은 모든 고난도 헤쳐 나갈 수 있으며, 모든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과 봉사 생활이 지치고 힘이 든다면 다시 예수님과 성령님께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무겁게만 느껴지던 나의 짐이 가벼워짐을 알게 됩니다. 괴로웠던 마음에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한 활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과 봉사 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실패하지만, 부활의 예수님과 능력의 성령님과 동행하며 감당할 때 승리하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yosupbois@hotmail.com

기도/칼럼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교회)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깨달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깨달음은 갑자기 임합니다. 홀연히 임합니다. 생각지도 않는 순간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밀려오는 감동은 진한 색깔처럼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물감이 번져 나가듯이 심령을 천국의 색깔로 물들입니다.

며칠 전 저녁 식사를 하는 중 갑자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라는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마음에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천만송이 장미를 가슴에 가득 안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지랑이 같은 안개가 내 안에서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히13:5).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 니이다"(시9:10).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수1:5).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리라"(렘애3:31).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사41:9).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시94:14).

식사 중의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습

니다. 모든 것은 순간이었습니다. 거울을 안 보아도 내가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 평안, 따뜻함, 행복이었습니다. 깨달음은 지식이나 이론,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요, 100%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진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신31:6).

독자의 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승리하셨네 -거듭나게 하심

호기돈 장로 (퀸즈한인교회)

해가 저물 때 하늘을 보며 기도할 때 성령 임하니 은혜가 넘치네
진리의 말씀 듣고 회개하는 마음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드리네
어두움에 사로잡혔던 죄로 물들인 심령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음을 감사 찬송으로 찬만하리

욕망이 깊은 어두움 속에 하늘을 보며 기도할 때 성령 임하니 권능이 넘치네
말씀의 검을 들고 목상하는 마음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드리네
우리대장 거룩한 중 예수 이름으로 원수마귀 물리치고자 성령으로 찬만하리

동이 트는 새벽 꿈에 하늘을 보며 기도할 때 성령 임하니 기쁨이 넘치네

약속의 말씀 믿고 간구하는 마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리네
우리가정 우리교회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 보고자 믿음으로 찬만하리

아침 해가 솟아올 때 하늘을 보며 기도할 때 성령 임하니 새 생명 넘치네
생명의 말씀 듣고 나서는 아침 눈 귀 열어 마음 열어 주님과 함께 광야 같은 인생길인 나그네 길에 복음의 메시지 전하고자 사랑으로 찬만하리

할렐루야 우리주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우리주님 승리하셨네

시작노트: 성경 66권 속에서 6000년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주님이 주재이신 이 성경의 내용을 구약의 오시리라 하시는 주님, 주님의 오심, 성령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다.

donho5538@gmail.com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하 수상한 세상

세상이 참 어렵다. 여기서의 어려움은 힘들다는 말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아서일 게다. 인생은 고(苦)라는 말도 있으니 세상의 중심인 인생의 고는 곧 세상의 고가 아닐까 싶다. 사람이 고달프면 사람은 멀쩡한 세상을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이다.

어렵거나 힘든 가장 큰 원인은 욕심 때문일 것이다. 불신자의 대다수는 이 세상을 돈이 없어 어렵다고 말한다. 돈에 대한 욕구는 처한 상황과 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가진 자가 양 한 마리를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백 마리를 채워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니 돈에 대한 욕구는 의식주의 절대 필요에 국한되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돈의 용도는 쓰기 위함이지만 돈에 대한 욕구는 쌓아두기 위한 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을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셨다. 쓰지도 먹지도 않을 것을 구하는 것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위배된다. 무엇보다 당장 필요한 자들의 것을 취하여 쌓아두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 눅12:13-21에 어떤 부자가 많은 소출을 얻었으나 쌓아둘 곳이 없어 작은 창고를 헐고 커다란 창고를 새로 지어 거기에 곡식을 가득 쌓으면서

자기 영혼에게 이제부터는 아무 염려나 걱정을 하지 말고 실컷 먹고 마시며 그 부를 누리자 했으나 하나님이 그 밤에 그를 불러가셨으니 그가 쌓아둔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기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욕심은 멈추지 않는다.

요즘 한국은 LH 직원들과 기득권자들의 투기의혹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사들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한 비난과 성난 민심이 들끓고 있다.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돈벌이가 있어 내일 천만금이 생긴다 해도 당장 돈이 없다면 언감생심일 뿐이다. 의

식주를 해결하고 남을 만큼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져 쌓아두고 누리기 위해 불법 부당한 진면목들이다. 백을 채우겠다는 욕심의 끝(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이 좋지 않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일까?

신자 특별히 기독교 성도들은 사랑이 없어 어렵다고 여긴다. 사랑은 사람들이 입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단어일 것이나 정작 세상엔 사랑이 부족하다. 왜일까? 사랑은 사랑이라 쓰고 희생이라 읽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랑엔 반드시 희생이 전제된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사랑의 정의가 된다. 사랑하기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것이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닮고 따라야 하는 성도들조차 사랑을 입으로만 하려 한다. 예수님은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라고 하셨다. 어둠을 밝히는 빛을

말하기 위해서는 초가 녹고 기름이 닳아야만 된다. 소금이 많이 가져 쌓아두고 누리기 위해 불법 부당한 진면목들이다. 백을 채우겠다는 욕심의 끝(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이 좋지 않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일까?

사랑은 주는 것이고 사랑은 참는 것이며 사랑은 내가 죽는 것이려면 사랑에 가까이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사랑이라 써놓고 죽음이라 읽어야 한다던 얼마쯤의 사람이 사랑을 입에 담을까?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다. 대가 그것도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사랑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에서 죽어주시는 것이다.

고전13:1에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다고 말씀하신다. 이는 말로만 하는 사랑도 포함될 것이다. 사랑의 본질을 행할 때만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의미가 더해진다. 그것이 곧 사랑의 힘일 것이다.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돈은 없어서가 아닌 과도한 욕심이 탐이다. 일용할 양식이 아닌 쌓아두기 위한 욕심이 결국은 사랑에까지 이르게 된다.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는 진실을 넘어 진리이다. 진리는 사람을 자유케 한다.

성도들이 추구하는 사랑은 부족한 게 문제다. 사랑에 대한 오해와 이기적인 해석이 성도에게서 사랑을 고갈시킨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사랑의 대가는 희생(죽음)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예수님이 죽음으로 보여주시는 사랑의 본질을 따를 수 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비우고 그 자리에 희생을 택한 사랑을 채우는 삶이 인생이고 그것이 곧 세상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대해 보시기에 좋다고 하실 것이다.

hanmackim@hanmail.net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가정상담소 핫라인 자원봉사 교육 접수

제 43기 핫라인 자원봉사 교육이 4월 13일(화) 시작된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되는 본 교육과정은 가정폭력에 관련된 법적지원, 경제교육, 알코올 및 약물중독, 뉴욕 내 임시주택과 쉼터, 피해자 보상제도, 아동 및 노인학대, 성폭행 관련 교육과 방지책, 상담방법 등을 전문 변호사, 경찰, 상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빙돼 교육한다. 5주 교육이수 후 수료증 수여식이 있으며, 이후 당소에서 운영되는 상담소의 24시간 핫라인 디스패처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본 자원봉사자교육을 수료한 봉사자들의 모임 '하모니'에서 지속적인 자원봉사와 더불어 정기적인 재교육 및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개인은 물론 단체 수강도 가능하다. 접수 신청: <https://kafsc.org/ko/volunteer>
▲문의: (718)460-3800 Volunteer@kafsc.org

봉사자 모집

패밀리리치(원장 정정숙 박사)가 성인봉사자를 모집한다. 지원분야는 △사무행정, 행사 및 후원모금 지원 △미디어(유튜브, 소셜미디어, 그래픽디자인) △어린이/청소년, 시니어프로그램 보조 등. 혜택은 패밀리리치 프로그램 무료수강, 100시간 이상 대통령봉사상 시상, 청소년에게는 추천서 지원, 대통령봉사상 자격이 주어진다.
▲문의: (201)242-4422

자녀회복학교 TEENZ HMMS

낮은울타리 미주본부(대표간사: 조희창 목사)가 주최하는 N세대 자녀들을 위한 "자녀회복학교 TEENZ HMMS"(영어 진행)가 3월 31일부터 5월 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미동부시간, 서부시간 오후 3시-4시30분) 6주간 줌 화상으로 열린다. 대상은 7학년부부터 12학년까지이며 등록비는 60달러. 등록 <https://forms.gle/6ZoCGUzuzjwQtiQK8>
▲문의: (646)300-4790

뉴욕교협 '부활절새벽 연합예배' 온오프로

4월 4일(주일) 오전 6시 뉴욕효신장로교회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문석호 목사)가 매년 진행해온 '부활절새벽 연합예배'가 올해는 팬데믹으로 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교협은 각 교회 형편과 사정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예배시 현재 뉴욕교협이 펼치고 있는 10-10(텐텐) 기도운동의 기도제목으로 합심기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도제목은 1)코로나 종식과 교회 회복을 위하여 2)세계선교와 선교지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하여 3)한국 교회와 이민교회를 위하여 이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부활절

새벽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회신교회가 성도들은 교협이 준비한 새벽예배에 현장 혹은 실시간 온라인 참여를 안내했다.

예배는 부활절인 4월 4일(주일) 오전 6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진행된다.

한편 교협은 3월 25일(목) 오전 10시30분 친구교회(담임 빈상석 목사)에서 부활절 준비기도회를 갖는다.

▲문의: 총무 한기술 목사 (646)520-7667, 부활절예배 준비위원장 조원태 목사 (718)309-6980

뉴욕교협 47회기 예산안 발표

뉴욕교협 47회기가 지난 총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예산안을 18일 이메일을 통해 발표했다. 코비드 팬데믹으로 46회기 결산 35만2천607달러보다 5만여 달러를 적게 잡았다.

수입예산은 총 30만 달러로 내역은 회비 2만5천 달러, 행사비 9만5천 달러, 후원금 11만5천 달러, 주소록 광고 3만5천

달러, 기타 1만7천812달러, 이월금 1만2천187달러다.

지출예산은 총 30만 달러로 내역은 관리비 2만 달러, 인건비 4만 달러, 행정비 4만 달러, 행사비 12만6천 달러, 후원비 6만 달러, 기타 1만 달러, 예비비 4천 달러다.

(유원정 기자)

이노비&뉴욕 멧오페라합창단 디지털콘서트

문화복지 NGO 이노비와 뉴욕 메트로폴리탄오페라 합창단이 디지털 콘서트를 준비한다. 이를 위해 3월 17일과 18일 2회의 촬영을 뉴저지 NV팩토리에서 마쳤다.

촬영한 음악회는 4월부터 미국내 병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과 한국 주요 대형병원과 복지관 등에서 상영할 계획이다. 두 단체는 이번 3월 디지털 콘서트를 시작으로 6월에 2회의 공연촬영을 계획에 있고,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경우 빠르면 가을부터 시작되는 찾아가는 콘서트 프로그램에도 함께 할 계획이다.

이노비와 메트로폴리탄오페라합창단 단원들이 함께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코로나로 인해 고립돼있는 소외계층에게 쉽게 접할 수 없는 고품질의 음악으로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한다.

오랜 이노비 뮤지션이자 이번 프로그램의 디렉터를 맡은 메트로폴리탄오페라 코러스

멤버 바리톤 이요한씨는 "그동안 멧오페라합창단 동료들이 이노비에 대해 알게돼 봉사연주에 많이 참여하고 싶어 했는데, 올해 좋은 기회로 함께 시작하게 됐다. 이번엔 참여한 멤버들은 최소 7년에서 20년까지 오랜 시간 멧오페라와 함께 온 실력과 뮤지션들"이라고 말했다.

이노비 김재연 사무국장은 "디지털형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보다 다양한 장소와 대상에게 무한파급, 전달될 수 있다. 음악이라는 만인공통의 언어로 멧오페라코러스와 이노비가 협력할 수 있고 또 행복과 사랑을 세계 곳곳으로 전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윌리엄앤트 자오쥘렉 파운데이션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후원문의: enobinc@gmail.com

(기사제공: 이노비)

“기도해야 삽니다” 주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장로 전국 기도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조문휘 목사) 목사장로 기도회가 지난 22일과 23일 오후 4시(동부시간)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각 지역별로 열렸던 이 기도회는 올해 팬데믹으로 전국 기도회로 진행됐다.

“기도해야 삽니다”라는 주제로 첫째 날 예배는 조은철 목사(교육부 부장) 사회로 기도 임철성 목사(중부노회), 설교 및 축도 조문휘 목사(총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조문휘牧사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기도”(단6:10)라는 제



22일 KAPC 목사장로 기도회가 줌 화상으로 진행됐다.

목의 설교에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2가지 기도, 즉 회개와 감사의 기도”에 대해 전했다.

조 목사는 “앞장서 주님을 섬기고 본을 보여야 할 목사와 장로부터 진심으로 회개하고 애도함으로 용서받고 이 땅과 팬데믹이 고쳐지는 역전의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 비록 어렵지만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습관으로 역전을 일으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사와 장로가 되



김진화 목사(왼쪽)가 노기명 목사(오른쪽)에게 유니폼을 전달했다.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발표

뉴욕목사회, 뉴욕목회지축구단에 유니폼 등 지원도

뉴욕목사회(회장 김진화 목사)는 김재호 목사 이단시비건 관련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유상열 목사)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1월 25일과 2월 9일 2차에 걸친 모임에서 이단성 문제로 김재호 목사를 제명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2월 15일자로 목사회에 보고했다.

그 이유는 첫째, 이단성 문제로 김재호 목사를 제명한 것은 이단성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48회기 회장 이준성 목사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다. 둘째, 5년전 과거 김재호 목사의 사

도신경 관련 발언이 목사회에 명예를 손상시킬 정도로 교계에 보편적인 문제나 이슈가 되지 않았기에 당시 회칙(구 회칙 제 20조,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한다)을 적용해 제명 처리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뉴욕목사회는 2월 22일 뉴욕목회지축구단(단장 노기명 목사)을 찾아 건강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체육유니폼과 마스크, 손세정제 등을 전달했다.

(유원정 기자)



지난 18일 센트럴교회에서 열린 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앞줄 왼쪽부터 양춘길 목사, 김재열 목사. 뒷줄 왼쪽부터 이형근 장로, 김경열 목사, 김중국 목사, 이문홍 장로.

선교적 교회...위기를 극복으로

뉴욕 뉴저지 연합 실버선교학교 개강

뉴욕과 뉴저지의 실버선교학교가 22일 저녁 8시 온라인으로 개강했다.

선교학교는 뉴욕실버선교회(대표 김재열 목사)와 뉴저지실버선교회(대표 양춘길 목사) 모두 각각 지역에서 운영해왔으나 팬데믹 상황을 맞아 이번에는 연합으로 진행하며 온라인을 사용한다. 뉴욕은 제31기, 뉴저지는 제33기 훈련이다.

개강예배는 김경열 목사 사회로 기도 김중국 목사 기도 후 문석호 목사(뉴욕교협회장)가 “소망을 품고 일하는 사람들”(시71:14-18)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재열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김재열 목사는 “1년 동안 대면 못하는 특수상황 속에서 인내와 운운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뉴욕 뉴저지가 연합해서 만나게 돼 감사하다. 실버선교회를 통해 중년기 선교사가 많이 사역하고 있다. 늦게 타는 장작이 뜨겁다. 거룩한 믿음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마지막에는 참가

자들을 소개하며 덕담을 나누고 격려했다.

첫 강의를 맡은 양춘길 목사(뉴저지 펄그림선교교회)는 “선교적 교회 왜? 어디로?”라는 주제로 유럽과 미국, 한국의 기독교 교세의 감소 및 낮은 신뢰도, 미주한인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도표를 보여주고 “이런 상황을 볼 때 위기감을 느낀다. 그런데 이런 위기감이 극복이 될 수 있는데, 첫째로 영적 각성이다. 우리가 아직 힘을 낼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두 번째는 교회가 본질적 사명-선교를 회복하는 기회다. 셋째는 복음의 운동력 회복이다.

양 목사는 또 “레슬리 뉴비긴의 위기상황에서 시작된 선교적 교회운동”에 대해 설명하며 “선교적 삶이란 교회본질로, 선교적 삶으로, Here & Now, 하나님나라 확대로, 섬김의 영향력으로 나가는 리포커싱(refocusing)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CRM/NOVO의 미셔넬 패스웨이(1단계-일깨워라, 2단계-행동하라/개인, 3단계-

라”고 당부했다.

조문휘 총회장은 “개혁주의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이라며 1978년 예정 초대 총회장을 지낸 이인재 목사의 신사참배반대 간증을 하며 그 믿음을 이어받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도회는 송일용 목사(로스앤젤레스 노회) 사회로 △목사들을 위해 △장로들과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총회, 노회 임원들과 일꾼들을 위해 △총회사역들(연금, 신앙고백서/요리문답 발행, 묵회와 신학 포럼 등), 상비부 사역들을 위해 △팬데믹으로 아픈 사람들과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 △오는 5월 45회 총회를 위해 등 7가지 제목으로 진행됐다.

기도회는 부총회장 오세훈 목사의 마무리 기도로 마쳤다.

둘째 날 기도회는 23일 오후 4시(동부시간)에 시작하며 오세훈 부총회장이 말씀을 전했다.

(유원정 기자)



KAPC 뉴욕노회 목사임직식을 마치고 임직자와 노회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 뜻 따라 사역하라”

KAPC 뉴욕노회 7명 목사임직식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조문휘 목사) 뉴욕노회 주관으로 지난 3월 16일 저녁 6시 목사안수식이 열렸다. 이날 노회사상 최다인 원인 7명이 목사로 임직됐다.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열린 목사임직예배는 부노회장 이윤석 목사 인도

로 기도 허윤준 목사, 성경봉독 정인수 목사, 찬양 퀸즈장로교회 찬양대, 말씀 이종원 목사, 서약, 안수기도, 악수례, 공포, 착의식, 권면, 축사, 답사, 답가 임직자 이종창, 광고 임영건 목사, 축도 이영상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노회장 이종원 목사(뉴욕새사람교회)는 “주의 뜻과 주의 종”(약4:13-17)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며 “시간도 장소도 기한도 사역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반드시 이뤄주신다”고 강조하고 목사안수 받고 교회개척하고 사역해온 스토리에 대해 강조했다.

이규본 목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며 “그러기위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영혼구원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김성국 목사는 “험한 세상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답을 갖고 출발하는 것을 축하한다”고 축사했다.

임직자 대표 한우연 목사는 “말씀에 굳게 서서 부끄럼 없는 복음의 일꾼으로 속도록 충성하겠다”고 답사했다.

이날 목사로 안수 받은 임직자는 다음과 같다. 한우연 목사(주비전교회), 현종영 목사(주비전교회), 이재환 목사(뉴욕빌라델비아교회), 최진식 목사(퀸즈장로교회), 박병준 목사(뉴욕새사람교회), 허준 목사(퀸즈장로교회), 김정민 목사(퀸즈장로교회).

(유원정 기자)

평가하라, 4단계-진전하라/교회를 소개했다.

양춘길 목사는 강의에 이어 실버선교학교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두 선교회는 개강에 앞서 지난 18일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모임을 갖고 금번 학기의 강의를 맡을 강사들과 강의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5월 31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줌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될 이번 학기 강사는 김재열 목사(뉴욕실버선교회 대표), 양춘길 목사(뉴저지실버선교회 대표), 양민석 목사(뉴욕그레이트교회), 빈상석 목사(뉴욕친구교회), 김성기 목사(뉴욕교회), 황영송 목사(뉴욕정성결교회), 김경열 목사(뉴욕실버선교회), 임현수 목사(탈북선교회), 김병선 선교사(인도네시아), 이재환 선교사(아프리카 온누리선교회), 최동훈 선교사(케냐), 채종욱 선교사(인도), 이준성 선교사(Vision800 대표), 이광복 선교사(이과수목포), 조진모 교수(전 합동신대원), 김희기 간사(대학선교회), 정동화 장로(뉴저지실버선교회 해외본부) 등이 나선다.

(유원정 기자)

뉴욕모자이크교회 뉴욕나눔의집에 5천 달러 후원

지난 3월 5일 장동일 목사(뉴욕모자이크교회)와 최종수 권사(선교부장)가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을 방문해 한인노숙인 쉼터구입을 위한 후원금 5천달러를 전달했다. 후원금 전달 후 장 목사는 나눔가족들을 위해 더 좋은 환

경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했다. 뉴욕나눔의집은 리스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쉼터구입을 위한 모금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후원문의: (718)683-8884

KAPC 미서부지역 노회 정기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조문취 목사) 미 서부지역 노회들이 지난 9일과 16일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모두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린 노회에서는 회의를 통해 임원을 개선하고 헌의안들을 처리했다.

남가주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남가주노회 제 68회 정기노회가 9일 오전 10시 뉴크리에이션교회(담임 김관중 목사)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돼 신임 노회장으로 박용일 목사(남가주임마누엘교회, 사진)를 선출했다.



박용일 목사

정광욱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기도 김관중 목사, 설교 박용일 목사(‘여호와를 힘써 알자’, 호6:1-3)로 진행됐으며 정광욱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진행된 2부 회무처리는 목사회원 32명과 장로회원 2명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신 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했다.

노회장: 박용일 목사(남가주임마누엘교회) △부노회장: 이동진 목사(성화장로교회) △서기: 안병권 목사(가나교회) △부서기: 윤목 목사(한인소망교회) △회록서기: 한석호 목사 △부회록서기: 김태엽 목사.

한편 이날 회의를 통해 류부형 목사의 뉴잉글랜드노회로 이명 청원을 허락했으며 배용한 목사의 온세계교회를 ‘예수 세계교회’로 변경청원과 김관중 목사의 사무장로 2명 증원 청원을 허락했다.

로스앤젤레스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로스앤젤레스 노회가



로스앤젤레스 정기노회가 Zoom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16일 오후 7시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성기선 목사의 사회로 시작돼 김강인 목사 기도, 이훈우 목사 성경봉독, 조정기 목사 설교(‘십자가를 지켜낸 예수님’, 마27:35-44), 축도 박대원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임원선거를 통해 △노회장 조정기 목사 △부노회장 송일용 목사 △서기 김강인 목사 △부서기 이훈우 목사 △회록서기 양인수 목사 △부회록서기 배 현 목사 △회계 이재용 장로 △부회계 김성일 목사를 선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결의된 사항은 필라델피아노회에서 이명환 이규환 목사의 이명청원이 허락되고 송일용 목사와 김강인 목사의 교회설립 및 가입 청원의 건이 허락됐다.

또한 교역자회를 조직하고 회장 성기선 목사, 총무 김홍철 목사를 선출했다.

한편 신학교 이사로 오세훈 목사, 조대준 목사, 이훈우 목사 3인을 파송하고 회비는 자비량으로 결의했다.

가미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가미노회가 3월 16일 제 72회 봄노회로 모였다.



이진우 목사

BC주, 알버타주, 미국 알래스카를 포함한 교회들로 구성된 KAPC 가미노회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ZOOM 화상회의로 노회를 진행했다.



평등법안 저지운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비성경적...상원통과 결사반대 평등법안 저지운동 기자회견 열려

한인교계가 비 성경적인 ‘The Equality Act’(포괄적인 동성애 인권법안) 상원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저지운동 기자회견을 16일 오전 10시3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었다. 한기홍 목사(운동본부 대표)는 “평등법이 미 하원에서 통과되고 남은 일정은 미 상원에서 토의한 후 표결로 결정을 하려고 한다. 우리 한인 목회자들은 이 법이 창조질서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송정명 목사(운동본부 고문)는 “오늘 참석하신 목회자들과 기자들은 오늘 모임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 같다. 미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은 비성경적인 것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을 합해 결사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승연 목사(운동본부 실행위원)는 “이 법은 기독교의 생명력을 잃게 되는 악법

이다. 각 시도 교계 단체장들과 협력하고 타인종들과도 힘을 모아 반대운동을 펼쳐 나가자”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어서 샘신 목사(공동위원장)는 “평등법이라는 듣기 좋은 이름으로 하원에서 통과시킨 비 성경적인 이 법은 저주를 자초하는 법안으로 부모된 입장에서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4일 TVNext 김태우 목사와 김사라 사모를 강사로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와 26일 은혜한인교회에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제 14회 올네이션스 연합중보기도 컨퍼런스

GIM(글로벌국제선교교회연합, 대회장 정윤명 목사)이 주최하는 제 14회 올네이션스 연합기도 컨퍼런스가 3월 28일, 샌프란시스코 First Burmese Baptist Church(담임 Yishey Latt 목사)에서 Virtual(https://fbbcfs.org)로 개최된다. 역대기하 7:14 말씀을 주제로 한국을 비롯해 35여 민족이 참여하며 특히 중국, 홍콩과 한반도를 비롯 이스라엘과 동중지역 이슈를 다루며, 미얀마지역의 문제를 발표한다. 릭 더스트(Rick Durst, Gateway Seminary) 박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대회장 정윤명 목사는 “한반도의 자유와 인권을 비롯, 지구촌의 핍박받고 억압받는 교회들을 위해 미국교회 연합의 특별 기도와 발표가 있게 될 이번 컨퍼런스에 미국내 한인들의 많은 시청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문의: (925)639-9527 www.visionGIM.org

한인정신건강 전미 컨퍼런스

LA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가 4월 17일(토)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서부시간)까지 제1회 한인정신건강 전미 컨퍼런스를 ‘트라우마와 힐링’ 주제로 줌 화상으로 연다. 주제강의와 선택강의 2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주제강의는 수잔정 박사가 강사로 참여하며 선택강의는 세션 1의 ‘상처알기’, 세션 2의 ‘상처치유하기’를 주제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문의: (213)235-4848, mlee@kfamla.org, 카카오톡 ID: KFAMLA

사역자 청빙

복음장로교회(담임 이광형 목사)에서 유년부 사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요건은 소견전신 신학교 재학 혹은 졸업자(개혁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공부 중이거나 공부한 자) △영어로 사역해야 하며 한국어 능통한 자 우대 △유년부 사역경험자 우대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준비서류는 △이력서(가족관계 포함) △개인 신앙고백 △이전 교회나 사역지에서 추천서 2부 △개인 혹은 가족사진을 이메일(bogumkgpc@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bogumkgpc@gmail.com

교역자 청빙

나성한인교회는 교육부와 영어청년부를 함께 섬길 풀타임 교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미국내 복음주의 신학대학원(M.Div) 졸업하고 목사안수 받은 자(사역경험 4년 이상) △이중언어 사용자 △미국체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며 사역은 △교육부(CE)디렉터로서 모든 부서(영아, 유치, 유년, 중고등부, 한국학교) 사역을 지도 및 조율 △영어청년부(NEXT-GEN) 예배 설교 및 심방, 소그룹 인도 △교회 전체 행사에 적극적 참여. 제출서류는 △이력서(본인/가족 사진) △자기소개서 △신앙고백서 및 추천서 △최근 설교2편(음성/비디오 파일 혹은 Web Address), 마감은 4월 11일. 이메일(lacpckm@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323)221-9531



소망소사이어티 웨비나 강사 Grill 박사와 신혜원 박사

건망증과 차이...생활(식)습관 중요

소망소사이어티 3월 웨비나 ‘치매’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월 웨비나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치매’ 주제로 3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Zoom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사는 치매 및 뇌신경 질환 연구소인 MIND의 디렉터인 Joshua D. Grill박사와 아시안 아메리칸 디렉터인 신혜원 박사 두 사람이 치매와 관련된 궁금한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치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줬다.

그릴 박사는 “치매란 인지의 역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며 100%는 아니나 치매환자 대부분 알츠하이머를 갖고 있다. 치매 원인이 다양해 바른 진단을 받아야 옳은 치료법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킨슨병은 운동능력 밸런스를 못 맞추는 것인데 알츠하이머와 유사하게 특정 단백질이 쌓이면서 움직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인데 파킨슨을 일으키는 단백질이 뇌 속에서 다른 곳을 퍼져 인지능력을 담당하는 곳에 쌓이게 되면 치매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며 “현재 보통 치매에 쓰이는 치료약들이 파킨슨에 같이 쓰이기도 하며 이것을 어떻게 없애는지 방법들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치매와 일반 건망증은 다른 데, 치매로 문제가 생기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또한 매일 다니던 길, 아침마다 운동하던 코스를 걷다가 ‘여기가 어디지?’하고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일반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해 설명했다.

또한 치매환자가 성격이 바뀌고 난폭해지며 잠도 안자고 식사를 안하거나 소리가 들린다는 등, 변화가 오는 것은 뇌 속에 변화가 생기므로 본인이 억제할 수 없이 나타나는 상황이며 치매는 현재 치료약들이 효과적이지 않기에 환자나 돌보는 자 모두가 건강한 생활습관과 건강식을 권장하고 생활 패턴을 정해놓고 맞춰가며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연구에 민족과 인종의 차이점이 있기에 적극 협력을 당부했다. 그리고 박사는 혈압이나 당뇨도 잘 조절하고 적당한 운동을 쉬지 말아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4월 웨비나는 21일(수) 오전 10시30분 ‘유산상속’의 주제로 열리며 강사는 뉴욕라이프 최재홍 고문변호사가 맡는다.

▲문의: (562)977-4580 somang@somangociety.org (이성자 기자)



한파와 눈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현장의 모습

중남부 한파피해 구호헌금 1만불 지원

UMC한교총, 5차 형제자매 교회돕기 캠페인

미연합감리교회(UMC)한인교회총회(UMC회장 이철구 목사, 이하 한교총)는 지난 2월 갑작스런 한파와 눈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남부 지역 한인 연합감리교회를 위한 긴급 구호헌금 1만 달러를 지원했다.

한교총은 2월 중순부터 ‘솟아오르라, Rise Up!’을 주제로 사순절 특별연합성회와 ‘믿음의 글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엔 형제자매 교회돕기 캠페인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지난해 한교총은 COVID 19 사태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교회들을 위해 8월-11월 캠페인을 진행해 미국 내 46개 한인교회,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연합감리교회를 위해 158,000달러 선교헌금을 전달했다.

지난 2월에 닦친 혹독한 겨울 한파는 지나갔지만 중남부 지역 한인교회들은 교회건물 천장이 무너지고,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수도세와 전기료 폭탄을 맞는 등 피해 복구작업과 함께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교총은 한파로 피해를 입은 한인교회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1차 지원헌금 1만 달러를 5교회에 전달했으며,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교회들을 도울 계획이기도 하다.

이철구 목사(남부플로리다 KUMC, 한교총 회장)는 “코로

나 팬데믹의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 중남부 지역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한파에 폭설까지 내려 여러 한인교회들이 피해를 입었다. 갑작스런 한파피해는 코비드로 어려워진 교회에 더 큰 충격과 아픔이 되었지만, 한교총은 전국의 한인연합감리교회들과 함께 예수님의 피 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5차 형제자매교회돕기 모금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1년 형제자매 교회돕기 캠페인은 현재까지 7교회와 지역연합회에서 33,570달러의 헌금을 모았으며, 앞으로 더 많은 교회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참여한 교회명단은 남부플로리다KUMC(이철구 목사) 1만달러, LA드림교회(정영희 목사) 3천달러, LA한인연합감리교회(이장민 목사) 5천달러, 뉴욕성서교회(김종일 목사) 1천달러, 뉴저지연합교회(고한승 목사) 5천달러, 뉴욕만백성교회(이종범 목사) 1,320달러,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목사) 7,250달러, 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협의회(회장: 장학범 목사) 1천 달러.

▲문의: (856)424-9686, ikim89@hotmail.com 김일영 목사

(기사제공: UMC한인교회총회)

“초기 한국교회처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

예장합동 ‘프레어 어게인’ 운동, 6월까지 전국 9개 거점 순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이 제주 기도를 기점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프레어 어게인’ 운동을 시작했다.

예장합동은 21일 저녁 제주 동흥교회에서 제주지역 연합기도 집회를 열고 다음세대 회복과 전국 교회의 영적 부흥을 간구했다.

이병렬 경남 거창중앙교회 목사는 ‘전심기도, 하늘 문이 열린다’는 제목의 설교에서 40대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린이만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로 성장한 비결을 소개했다.

이 목사는 “2000년 부임 후 무릎기도, 산기도 등 하루 최소 5시간 이상 기도로 목회했다니 교회 주변에 공단이 생기고 인구가 유입되는 등 기적이 일어났다”면서 “하나님께 유년주일 학교를 살리라는 기도응답, 대 사명을 받고 어린이 전도에 매진했다니 아이들이 물려들기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오한 계시록의 빌라델비아교회가 되길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다니 영적으로 하늘 문이 열렸다”면서 “가치가 불교 세력이 강한 지역인데, 성탄트리 축제를 개최

하니 연등축제가 중단됐다. 이처럼 영적 지형의 변화도 함께 일어났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설교자로 나선 이기봉 전주 초성교회 목사는 “목회자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강단을 눈물로 적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교 후 기도 묵화로 알려진 최남수 의정부 광명교회 목사가 마이크를 잡고 통성기도를 인도했다. 최 목사는 “설교 말씀처럼 기도하는 교회는 도심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킨다”면서 “밤을 새워 기도하던 한국교회 초기의 영성, 초대교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자”고 부름을 내렸다. 기도회에 참석한 제주 지역 목회자 20명은 “목회자가 먼저 기도의 산재물이 되자”는 최 목사의 제안에 따라 강단에 올라와 무릎 꿇고 기도했다.

프레어 어게인은 예장합동이 2008년 시작한 ‘기도한국’의 정신을 잇는 기도회복 운동이다. 오는 6월까지 전국 9개 지역 거점교회를 돌며 연합기도회를 개최하며 유튜브 채널 ‘프레어 어게인’으로도 생중계한다. 다음 기도회는 오는 28일 광주중앙교회에서 열린다.

미얀마군부 유혈진압 강력규탄

한교총 성명발표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어...”

한교총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미얀마 국민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미얀마 군부의 유혈진압을 규탄했다.

한교총은 18일 ‘미얀마에 민주주의의 봄이 오길 바란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한교총은 성명서에서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까지 투쟁하며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면서 “현재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 상황에 대해 심히 마음 아파하며 깊은 연민으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한교총은 미얀마 군부의 국민에 대한 무력 행위를 반대하며, 국민적 합의에 따른 민주 정부를 통해 안정을 찾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교총은 “한국교회는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

망을 지지한다”면서 “인권위원과 민간인에 대한 총기사용 등 무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 및 종교계와 힘을 모아 미얀마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미얀마에 거주하는 약 4000명의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약 3만2000명의 미얀마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란다”면서 “미얀마의 현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평화와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고난 중에 있는 미얀마 국민과 사상자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국민민주연맹(NLD)이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압승하자 불복하며 지난 2월 쿠데타를 일으켰다. 문민정부를 무너뜨린 것에 반발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저항하자 군경은 유혈진압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식물분과위’ 정상화... ‘교단헌법’ 개정작업 시동

기감, 29일 첫 회의 열고 현장 의견 반영키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이철 목사)가 제34회 임법의회 준비에 돌입했다. 기감은 2년마다 임법의회를 열어 교단 헌법에 해당하는 ‘교리와 장정’을 개정한다. 올해는 10월 중 열린다.

기감은 임법의회에 앞서 유명실한 분과위원회를 정상 가동할 예정이다. 기감에는 헌법연구·공천위원회, 교리적선언·사회신경·예배서(예문)연구위원회, 교역자수급·과정법연구위원회, 의회제도·행정연구위원회, 교회재산관리제도연구위원회, 재판법연구위원회, 은급제도연구위원회, 장정개정위원회, 장정유관해석위원회, 규정·규칙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11개 분과위가 있지만, 장정 개정위만 가동해 왔다. 장정 개정위는 임법의회에서 다룰 개정안을 종합한 뒤 심의하는 위원회다.

아무런 기능을 못 하는 ‘식물’ 분과위는 교리와 장정 개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게 했다. 분과위가 제 역할을 못 한 건 10여년간 기

감 교단이 내용을 겪었던 영향도 있다.

489명의 임법의회 회원 명단을 확정된 기감은 18일 분과위 조직도 마무리했다. 분과위 전체는 오는 29일 첫 모임을 하고 임법의회에 상정할 교리와 장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간다. 각 분과위가 마련한 개정안 다음 달 20일 열리는 장정개정위가 모아 검토한 뒤 이르면 5월 중 개정안을 확정한다.

이철 감독회장도 분과위 정상화를 통해 임법의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감독회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명실한 11개 분과위를 모두 가동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청취한 뒤 장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분과위가 제대로 가동되면 기감 전체의 바람도 살필 수 있고 막혔던 소통도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임법의회에서는 은퇴목회자 은급, 통합 신학대학원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기/고/칼럼

신원규 목사 (좋은마음교회)



사랑하는 우리 고향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내년 대선에서는 이런 분이 지도자가 되어 국가 경영을 맡기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정치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 △둘째, 피해자로 상처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 △셋째, 공정과 질서가 언어에 머물지 않고 뱃속 깊은 곳까지 스며 있는 사람 △넷째, 치우침이나 편협된 사상에 토착되지 않고 건강한 자유민주주의의 삶으로 행동하는 건강한 사람 △다섯째, 다양한 백성을 품고 이해와 용서와 화해로 행복한 나라를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요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냉정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좌우가 아닌 지도자 선택을 지금부터 마음에 담으시고 책무를 다하는 그날을 향하여....

저는 해외 동포로 40여년을 망원경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이런 아침에 마시는 찻잔 속에 보여지는 우리의 대한민국을 사모하며... 작은 글을 받는 귀한 모든 이에게 살롬!!

총상금 5천만원 ‘K-가스펠’ 오디션

CTS기독교TV, 국적 나이 장르에 상관없이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는 제1회 ‘K-가스펠’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디션의 총상금은 5000만원으로 국적, 나이, 장르에 상관없이 찬양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TV조선 미스트롯 출신의 가수 류지광이 사회자로 나서 ‘K-가스펠’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과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 기획됐다.

심사위원은 김문정 뮤지컬 감독, 가수 양동근, 알리, 배다해, 루카(여행스케이치), C염평안 CCM작곡가, 가시나무(시인)과 조성모, 백석예술대학교 하덕규 교수와 시와 그림

김정서 목사와 선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고장원 사장은 “국적과 나이에 상관없이 K-가스펠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가자들이 만들어 내는 찬양의 멜로디가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소망한다”면서 “찬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이웃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획된 오디션 프로그램을 성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만 하며, CTS 또는 K-가스펠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세기총이 4월26일 정기총회에 앞서 임원회의를 가졌다. (사진제공: 세기총)

“코로나 재난은 교만에 대한 경종”

제10회 크리스천리더스포럼, “교리와 윤리 균형 중요”

세계적 과학자인 신성철 전 카이스트 총장은 코로나19 재난의 시대를 맞아 인류의 교만과 기독교인에 대한 경종이 동시에 울리고 있다고 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형그리 정신으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꿈을 이뤄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30개 교회로의 분립, 1만 성도 파송운동을 하는 이찬수 분당우리교회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 하심에 힘입어 행동하는 신앙”을 강조했다.

국민일보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제10회 크리스천리더스포럼(CLF)을 개최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행사 전체는 유튜브 미션 라이프TV를 통해 생중계했다. 산정현교회 장로인 박화재 우리은행 부행장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했다. 남태평양 피지 출신의 성악가 소코는 특

송을 맡아 특유의 따뜻하고 편안한 음색을 선사했다.

신 전 총장은 ‘코로나 시대의 신앙’을 주제로 강연했다. 신 전 총장은 서울대 응용물리학과 학사, 카이스트대학원 고체물리학과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대 재료물리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간 카이스트 최초 동문 출신 총장을 역임했다. 서울삼호침례교회 안수집사다.

신 전 총장은 “핵무기, 기후위기, 코로나19 같은 감염성 질환이 인류가 직면한 세 가지 대표적 위협”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코로나19에 대해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포함된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작은 물방울이 확진자의 호흡 기침 재채기 등으로 퍼져 주위 사람 호흡기에 들어가 바이러스 복제를 일으켜 감염된다”고 기전을 설명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Dr.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세례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세례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뮤지, 유년, 종교동무: (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시애틀평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254)501-4933(C)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www.on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제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찬양모임: 오후 3:00
세례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527-0981, (254)501-4933(C)
1000 E. Vel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김형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EM)
수요찬양: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804)560-7500, www.l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세례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m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Tel: (206)527-0981, (254)501-4933(C)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Tel: (206)527-0981, (254)501-4933(C)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선교의 창 (166)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거룩한 삼각구도(The Holy Triangle)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는 아프리카 속담이다. 그곳에는 사막이 많고 정글도 있어 멀리 가려면 길동무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생긴 속담이 아닌가 싶다. 선교는 어쩌면 멀고 험난한 길을 가는 여정이다. 혼자서는 이룰 수 없다. 그간 한인세계선교는 자타가 공인하듯 빨리 가기 위해 애썼다. 그 양태는 각개전 투식이었다. 그 결과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반세기가 지난 지금 한인선교가 세계 여러 곳에서 밀려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한마디로 열심은 있었지만 체계적이거나 전략적이지 못했다.

것이다. 이는 선교사, 후원교회, 파송단체가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한 틀 속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1. 선교사(a missionary 宣教師)

스펠전 목사는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가능하면 목회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일단 선택했다면 생명을 걸고 사역을 감당

서 찾아오는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기 어렵다. 선교사에게 가장 큰 고통은 외적인 환경보다도 고독감이다. 따라서 선교사는 공적기관으로부터 후원과 파송을 받은 유기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선교사는 선교부의 지시에 무조건 맹종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자신을 파송하는 지교회의 바램이나 선교본부의 전략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지휘부를 무시한 독불장군식의 선교는 성경적이지도 않으며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2. 후원교회(Sending Church)

일반적으로 본국에 있는 후원자 교회는 선교를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마치 경기장에서 목회자들은 뛰고 성도들은 스탠드에 앉아 응원하는 격이다. 선교란 전방에 있는 선교사의 몫이고 후원자는 단지 뒤에서 기도와 헌금으로 밀어준다는 생각이다. 이

선교사이거나 마땅히 희생하라”라는 인식은 문제가 크다. 일반적으로 후원교회들이 후원금 보내는 것 외에 무관심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어떤 교회는 필요 이상으로 선교사를 달달 뷁기도 한다. 매달 사역보고를 하라는 것이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전사는 싸움에 올인(All In)해야 한다. 현대 후방에서 자주 부담을 줄 때 신교회가 곤두서게 되며 사역에 집중할 수 없다. 후원교회는 선교사를 신뢰하고 그를 편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아닐 때 선교사는 삼중의 스트레스 속에서 자기 페이스(pace)를 잃을 수도 있다.

3. 선교본부(Mission Headquarters)

선교본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가 신속하고 원활히 펼쳐질 수 있도록 선교사와 후원자 사이에서 교량적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주된 목표는 사역의 극대화이다. 이를 위해 지혜를 짜고 힘을 모으며 여러 관계

데 있다. 그 여파로 대다수 선교부들은 정보나 행정 그리고 재정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구십점을 잡고 지휘를 해야 할 본부사역이 부실하니 선교가 짜임새 있게 될 리가 없다. 심장이 없는 몸통을 가정할 수 있을까? 전략사령부가 없는 전선은 어떻게 될까? 문제는 이 사역의 중요성, 특수성, 시급성을 알면서도 우선순위에 늘 뒤로 밀린다는 것이다. 한인 선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교회들이 선교사를 지원하듯 선교기관들을 적극 밀어주어야 한다.

4. 세 기관의 상관관계

현대선교는 선교사와 후원교회 그리고 선교본부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17C 독일의 루터파 목사 웰츠(Justian von Weltz)는 선교회는 모금자(promoters), 관리자(operators), 선교사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는 이른바 선교사역을 위한 ‘거룩

를 파송하는 주체는 GMS가 되고, 후원의 주체는 후원을 감당하는 파송교회가 된다. GMS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의 신분이나 행정 및 사역에 관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파송교회와 협력하여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GMS 운영규칙 제4장1절). 좋은 내규이다.

맺음 말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는 역동적(Dynamic)이어야 한다. 건강하고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거룩한 삼각구도가 한 대안이다. 한인선교사들은 대체로 나홀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들은 소속선교부가 아예 없는 자도 있고 설령 있다 해도 본부가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이다.

교회들은 어떠한가? 전문성이 결여된 채 직접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결과에 파송기관이 있음에도 의뢰하기를 꺼려한다. 그렇게 하면 내 교회가 선교의 중심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서구에 비해 한인선교기관들은 너무나 열약하다. 한국에는 약 120개 이상의 자생 선교단체가 있다. 그중 전략본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곳은 1/10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부사역이 취약한 것은 가치 인식도가 낮고 지원이 약하기 때문이다.

반세기를 훌쩍 뛰어넘은 한인선교가 이대로 좋은가? 이제는 미래의 공동과업을 위해 선교적 구도를 좀 더 짜임새를 짜야 한다. 그것은 선교사와 후원교회 및 선교본부가 맞물리듯 서로 잇박자를 내기보다 성령 안에서 유기적 조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jrsong007@hanmail.net

한 삼각관계(Holy Triangle)이다. 선교사는 지역교회(Local Church)의 후원을 받으나 선교회(Mission Organization, Para-Church)에 소속되어 그 정책과 전략에 따라 사역을 감당한다. 그런데 선교사는 이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와 행동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복잡한 삼각관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GMS는 운영체제를 정했다. “선교사

거룩한 삼각구도는 후원교회-선교회-선교사로 엮어진다. 세계화란 기능 면에서 분업화, 전문화, 조직화 되는 것이다. 선교 역시 팀워크로 세계화를 지향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낳게 된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문화권에 목회자로 부름 받은 것도 이렇할진대 선교사는 오죽하겠는가?

선교사는 사도라는 말과 깊은 관련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20:21). 즉, 이방인 영혼 구원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다. 선교사는 수많은 영적, 심리적, 육체적, 환경적 압박을 받는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고한 소명의식이 결여되면 선교지에

러한 사고의 틀은 옳지 못하며 선교를 위축시킨다.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하시며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신다. 성령이 선교의 주체이다. 그러므로 후원이란 말은 어폐가 있다. 만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옥합을 깨뜨린다면 그 자체가 선교이다. 중요한 것은 전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와 후원교회가 일체감 있게 동역하는 것이다. 선교사가 갖는 아픔과 짐을 교회도 나누어야 한다. “당신은

자와 연대한다. 본부는 결코 선교사를 다스리는 상급기관이 아니라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섬기는 행정기관이다. 그 기능은 크게 인사, 교육, 재정, 홍보 분야로 나뉜다. 이 업무는 전문성, 다양성, 창조성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선교본부에는 유능한 실무자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상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한인선교의 가장 큰 아킬레스(Achilles)건은 선교본부 사역에 대한 인식도가 너무 낮은

특/별/기/고

두 주일 간의 속제 : 피를 한 바운씨 가져오라

저는 2004년에 70정년으로 38년간의 경신중.고등학교 교목을 은퇴하고 17년이 되었습니다. 1949년 중학교 1학년부서 서울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문안교회에서 목사 될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1967년에 경신학교 교목으로 부름 받아 학원목회로 시

1950년 대 말 새문안교회 고등부를 지도 하 시던 황광은 목사님(사진)은 당시 한 국교계에서 이름난 목사님이셨다. 하도 재주가 많으셔서, 학생들도 팔방미인이라고 별명을 붙여드리기도 했다. 목사로서 서울 보이스카웃(Boyscout) 지도자이기도 하였고 교회연합기관인 기독교교육협회 총무로도 사역하셨는가 하면, 아동문학가인 동시에 장년 및 청소년 대상 설교는 물론 구연동화의 일인자였고, 피아노와 트럼펫 등 악기 연주와 더불어 간단한 부채를 이용한 손마술 또는 핑거댄스(finger dance)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다. 나도 그때 황 목사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마술과 핑거댄스를 할 수



있다. 주일에는 중고등부 지도목사로 설교를 하였고 여름수련회 때는 우리들을 YMCA 수양관에 데리고 가서 4박5일간 말씀 공부는 물론 stunt night(춘극대회), 야구, 마라톤, 수영, 야간 낚시 점령하기 등 여러 가지 흥미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신앙을 살피게 하시기도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

그런가하면 어느 해에는 여름수련회를 불우청소년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난지도 Boys Town에 인솔하고 가서 그들과 함께 기거하며 연합수련회를 갖기도 하고, 또 어떤 해에는 서울주변 봉일천 고아원에 데리고 가서 그 아이들의 빨래도 하고 그들이 먹는 강보리밥(입에 한 숟가락 넣으면 입천장을 따끔따끔 찌르는)을 같이 먹도록 하는 등 불우한 소년들의 삶을 체험하게도 했다. 한 번은 우리 고등부 남녀임원들

작해서 학원목회로 마쳤습니다. 지금은 새문안교회 재직목사로 주일이면 예배드리러 갑니다. 사순절기간에 있었던 옛날이야기를 아래와 같이 몇 자 적었습니다.

을 명동성당에 인솔해가서 천주교 미사를 참관하도록 하시는 다른 목사로서는 상상도 못할 요새말로 열린 목사님이셨다. 말하자면 에큐메니칼의 선구자시였다.

황 목사님이 대광중고등학교 교목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1960년, 4.19때 대학생들의 시위에 흥분한 대광 학생들이 밖으로 시위하러 나가려하자 학생들을 모아놓고 잠시 기도를 하고 내보내기도 한 대담하고 과감한 목사님이셨다. 나는 38년간 경신중고등학교 교목으로 재직하는 동안 학교에서는 물론 여러 교회의 교육목사로 활동을 할 때마다 그분의 Learning By Doing의 교육방법을 활용해 많은 효과를 보기도 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황 목사님을 다시 떠올려보는 이유가 있다. 1950년대 말 내가 새문안교회 고등부시절, 지도목사이기도 했던 황 목사님의 신앙



김종희 목사 (예장 서울노회 전 노회장)

교육이 이 시대에 너무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황 목사님은 매 월요일마다 고등부 임원들을 하고 후 집에 가는 길에 교회에 들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월요기도회를 인도해주셨는데, 어느 날 일주일간의 속제를 주셨다. 다음 월요일 밤과 후 월요일모임에 올 때까지 한 주간 동안 어느 누구하고도 한 마디도 말을 하지 말고 오라고 하셨다. 나는 일주일동안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도 듣지도 않았다. 심지어 학교교실에서 선생님이 질문 할까봐 선생님의 눈을 피하기도 하고 학급 학생들과도 말을 하지 않고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하고 일주일의 지나고 교회 월요일모임에 갔다. 그날도 여전히 평소같이 기도회를 인도하신 후에 또 다시 지난번보다 더 어려운 속제를 주셨다.

다음 월요일 올 때까지 신체 어느 부위도 상관없으니 피를

한 방을 가져오라고 하셨다. 나는 어디서 피를 낼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바닥을 생각하면서 쇠 못 하나를 구해 왼손바닥 한 복판에 못 끝을 대고 오른 손으로 힘껏 눌렀다. 통증을 느끼기는 했는데 그러나 손을 펴 보니 조금도 살을 뚫고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래서 2차 시도를 했다. 쇠 못 끝을 현관 앞바닥 콘크리트에 갈아 뽀족하게 만들어서 다시 더 세계 누르는 시도를 했다. 손바닥이 따끔하도록 눌렀다. 손을 펴보니 아무 반흔이 없더니 조금 있으니까 손바닥 가운데서 빨간 피가 한 방울 겨우 솟아올랐다. 얼른 종이에 묻혀서 접어가지고 교회로 갔다.

임원 중 고3 남학생만 셋이 피를 종이에 싸 갖고 왔다. 한 학생은 우리 교회 담임목사님이셨던 강태국 목사님의 아들 강우정(현재 부친이 설립한 한국성서신대학교 총장)과 회장인 김찬주가 새끼손가락에 면도칼로 상처를 내서 피를 내왔다. 그 둘은 새끼손가락을 하얀 반창고로 감고 있었다. 나는 피 묻은 종이만 펴서 내밀었다.

목사님은 확인만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평소 하시던 대로 기도회를 인도하셨다. 우리는 왜 일주일간 말을 못하게 하시고 왜 피를 내오라고 하셨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 후에도 황목사님은 아무 언급도 안하셨고 대광 교목으로 가실 때까지도 무슨 뜻인지 설명도 안하시고 가셨다. 다른 친

구들은 어떤지 알 수 없고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서야 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피를 한 방울 내오라고 하셨는지를 스스로 깨달았다. 그 두 주간의 시기가 사순절 마지막 예수님의 고난주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 받으실 때 아무 말로도 항변하거나 변명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양 손과 양 발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십자가에 달려 선혈이 낭자하게 피를 흘리신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사실을 우리 임원들에게 지적인 이론이나 말씀으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실천으로 체험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말로 이론으로 학식으로가 아니라 먼저 체험하게 함으로 후에 스스로 알고 깨닫게 하는 즉, 체험우선(learning by doing) 교육이었던 것이다. 존 듀이의 교육철학을 실천하신 것이었다. 목사님도 대법적인 교육자였을 뿐 아니라 교육자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피를 내가지고 갔던 우리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기 두려운 순진했던 것 같다. 오늘날 그 목사님처럼 학생들에게 그런 속제를 내주면 어떤 까?

2021년 3월 17일 고난주간을 앞두고

hyojungyoo2@yahoo.com

기독교명저로의 초대

(8면에서 계속)

그는 굳건하게 은혜언약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 성격을 고수하면서도, 동시에 언약에 속한 자녀의 책임을 강조했다. 신앙은 행함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순종은

언약에 속한 자녀의 경험적 삶의 기초를 이룬다. 이 순종은 참된 경건 곧 교리와 삶의 결합점이요, 바른 교리와 바른 실천의 교차점이다. 그는 자신의 언약신학의 체계를 통해 은혜와 순종 간에 조화가 있고 모순은 없다는 점을 입증했다. 그에게 있어 이런 순종의 공식적인 구조는 십계명의 방향과 내

용을 통해 세워진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

주관적인 은혜와 값없이 주어진 신앙 및 책임 있는 순종을 적절하게 결합시키는 열쇠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발견되신다. 에임스는 은혜언약에 따라 신앙과 순종,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계명, 정통적 신학과 정통적 실천의

조화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한 정교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에임스에 대해 평가할 때, 그의 의지에 대한 설명을 무시하고 의지 중심주의(主義主義, Voluntarism)로만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그의 전체 신학 곧 믿음의 종교와 겸손한 순종을 강조하는 개혁파 신학에 비추어 그의 각각의 가

르침을 해석해야 할 것이다.

‘신학의 정수’는 다른 어떤 철학도의 책보다 ‘하나님, 교회 그리고 세상에 대한 철학도 사상의 요점’을 아주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 책은 언약과 성화와 실천에 대한 철학도의 관점을 이해하는데 본질적인 책으로 모든 성도들과 신학자들에게 적극

적으로 추천받아야 할 책이다. 이는 오늘날도 여전히 참조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의 서재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셋째 대접 재앙(계16:4-7)찬463장

세 번째 대접이 강과 물근원에 쏟아질 때 생긴 심판은 어떤 성격과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첫째, 이것은 거룩하신 자의 의로운 심판입니다.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그 재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심임을 증거합니다. 둘째, 교회를 박해한 자의 심판입니다 (5). 이 의의 심판은 교회를 통해 나타남에 초점을 맞춥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따름을 보임이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사랑을 들어내셨습니다(장12:3). 셋째, 전능자의 완전한 심판이십니다(7). 이 심판으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구원임을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오직 전능자의 손으로 친히 완성됩니다. 그 완전한 구원 안에 거합니다.

화 넷째 대접 재앙(계16:8-9)찬219장

점점 더해가는 징벌은 하나님의 의를 더 분명히 나타냅니다. 물심판에서 불심판으로 옮겨진 그 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첫째, 그들은 태양의 불로 징벌을 받습니다(8). 불타자에 대한 심판의 극심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온 세상을 뒤덮습니다. 둘째,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9).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주합니다. 이것은 외부의 극심한 고통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탄이 주는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셋째, 회개치 않고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습니다(9). 극심한 고통으로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수할 수도 없는 불행한 처지에 떨어집니다. 주님이 주신 현실의 난관을 인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전염병이란 도구로 온 세상에 퍼져나가 전무한 고통이 연속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전염병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셋째, 그 고통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습니다(11). 이 극심한 고통은 자기의 고통을 돌이키기보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택한 자는 그 고통을 볼 때 즉시 회개로 나아갑니다.

수 다섯째 대접재앙(계16:10-11)찬402장

더해가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의가 적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결국 그 심판의 수위는 어떻게 높아질까요?

전염병이란 도구로 온 세상에 퍼져나가 전무한 고통이 연속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전염병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셋째, 그 고통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습니다(11). 이 극심한 고통은 자기의 고통을 돌이키기보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택한 자는 그 고통을 볼 때 즉시 회개로 나아갑니다.

첫째, 짐승의 보좌에 징벌이 임했습니다(10). 모든 악의 원흉인 사탄의 보좌에 심판이 단행됩니다. 그 일로 세상은 절대 암흑세계가 되며 온갖 고통이 따르며 견디기가 어려운 아픔이 일어납니다. 둘째, 큰 전염병의 고통이 일어납니다(11).

목 여섯째 대접재앙(계16:12-14)찬383장

여섯 번째 연속되는 심판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첫째, 거짓교훈으로 혼잡하게 합니다(13). 심판은 점점 영적인 심판으로 나아가 거짓교훈으로 혼돈과 공허 속에 떨어집니다. 거짓된 교훈은 거짓 영의 주요통로이므로 마지막에는 진리만이 이것을 이깁니다. 둘째, 귀신의 영이 활동합니다(13).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거짓된 교훈으로 온 세상을 유혹해 하나님과 우리관계를 이간시키려고 온갖 유혹을 합니다.

다. 이 거짓이 그리스도를 대적해 교회를 혼란시킵니다. 셋째, 전능자의 큰 날에 모든 왕들을 한 곳으로 집결시키십니다(14). 그 혼란은 마침내 적그리스도를 중심한 연합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구속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 후에 전능하신 자의 큰 싸움 곧, 전무후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금 복된 자(계16:15-16)찬167장

대접 재앙이 마칠 무렵 주님의 재림이 성취될 때 본문은 어떻게 말할까요? 첫째, 주님이 도둑같이 오십니다(15). 택한 자는 그 때를 깨어 준비하기에 도적같이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각심을 가지고 언제 오실 지라도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경건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둘째,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 됩니다(15). 그날에 바로 서기 위하여 깨어있는 자로서 믿음으로 얻은 의를 지켜야합니다. 그 때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하기를 힘써야합니다. 셋째, 아마겟돈에 왕들이 모입니다(16). 거짓 영은 왕들을 아마겟돈에 모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전쟁을 준비하지만 이 싸움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이 모두 완성됩니다. 이 승리의 반열에 참여한 우리는 주를 찬양하며 그 복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합니다.

다. 이 거짓이 그리스도를 대적해 교회를 혼란시킵니다. 셋째, 전능자의 큰 날에 모든 왕들을 한 곳으로 집결시키십니다(14). 그 혼란은 마침내 적그리스도를 중심한 연합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구속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 후에 전능하신 자의 큰 싸움 곧, 전무후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토 일곱째 대접재앙(계16:17-21)찬460장

마지막 대접 재앙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첫째, 최종 대접재앙으로 모든 구속사가 완성됩니다(17). 되었다는 선포가 일어남은 구속사가 모든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외친 다 이루었다는 선언이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선포입니다. 둘째,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18). 세상 멸망의 징조로 일어나던 지진이 이 때에는 최대의 지진으로 그 절정을 나타내십니다. 셋째, 큰 재앙으로

바벨론이 셋으로 갈라집니다(19-21). 그 지진의 재앙으로 바벨론 곧, 세상이 셋으로 구분되어 멸망됨을 보여줍니다. 모든 섬과 산들이 사라지고 큰 우박 재앙으로 온 세상이 초토화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는 우리는 정신 차려 진리를 붙들고 주를 믿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 (2)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오늘날 교회 예배에 주는 도전들

지난 회 모세와 시내산 예배와 음악을 통해서 본 역사적 고찰을 토대로 오늘날 코비드 팬데믹시대에 교회에 주는 도전들 즉, 온라인 예배와 예배에서의 회중들 그리고 나르시시즘의 관점에서 예배를 점검해보려고 한다. 아울러 미디어를 통한 오늘의 찬양에 대한 도전들 점검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같이 정의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대화(Conversation with God), 하나님께 드림(Giving to God)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Becoming more like the God)이다. 이 본질을 시내산 예배에 적용시켜 보면 예배에서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도의 모든 행위들 즉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들의 찬양, 그리고 모세의 지시에 의해 아스라엘 청년들이 제사를 위해 준비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을 통해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다.

1) 온라인 예배도 예배인가?

오늘날 회중들은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 되어가고 있다. 이에 회중들은 점점 더 예배에서의 구경꾼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예배를 대하는 마음가짐조차 많이 안일해져가는 안타까움이 있다.

지난 2019년 연세대학교 종교철학과 정재현 교수가 월드미션대학교 30주년 학술세미나 강연 중 어느 중세교부의 고백을 소개한 적이 있다. "하나님, 내가 지옥행벌을 면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차라리 나를 지옥행벌을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천국민을 목적

현실적 상황 기인한 온라인예배 정당화보다 교회본질 의무충실 본질에 기초해 문화 환경 변화에 맞춘 예배디자인 노력 요구돼

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많이 불안해 하다가, 이제는 온라인예배가 참 편리하다고 이야기한다.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 같다. 이처럼 대면예배를 절대고수하던 중, 장년층마저 이렇게 변화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모든 계층이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비상상황이 되기에 대면예배를 대체하는 것으로 온라인 예배가 출발했다.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적인 예배로 정착되어가는 것 같다.

삼아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차라리 나를 천국명부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 그 분을 닮고 싶은 것이 최고의 목적과 가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 예배자들에게 큰 울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두려움을 가진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포스트 코비드에 교인들을 교회로 다시 불러들일까 깊이 고민하는 소리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듣게 된다.

위와 같은 관점을 갖고 오늘날의 모든 예배와 찬양, 특히 온라인 예배와 찬양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예배에 대한 찬반양론은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논쟁이 되어오고 있던 것이었고, 코비드시대를 맞이하여 그 논쟁이 더 크게 부각되게 된 것이 사실이다.

오승성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 "단순히 영적인 이유만이 아니고 기존의 제도교회가 현장성을 중시한 대면예배를 통해 성장해 왔기에 대면예배의 붕괴는 기존의 제도교회의 붕괴로 보아 목회자들은 전통적인 대면예배가 불러올 수 있는 억압적인 효과들 즉 권위주의, 반지성주의, 인기영합주의들에 대한 비판적인 반성이나, 온라인 예배가 줄 수 있는 해방적인 효과에 대한 사려 깊은 숙고는 해볼 틈도 없이 바로 대면 예배로 복귀하고자만 한다"고 꼬집고 있다.

국민일보 서윤경 기자가 미국 교회성장컨설팅기관 처치앤서의 대표 톰 레이너 박사가 이야기 한 "코로나19가 종식돼도 온라인예배를 계속해야 하는 7가지 이유"를 지난 2021년 2월 3일 기사화 한 것을 보았다. 톰 레이너 박사는 2019년 1월 31일, "교회가 대면예배로 돌아가면서 온라인예배 서비스를 포기하고 있다. 이는 큰 실수"라고 하며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앞서 시내산 예배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미국의 유명한 예배학자 도널드 휴스테드는 다음과

그 첫 번째로 꼽은 건 대면예배로 전환해도 온라인예배 이용자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15면으로 계속)

R'surr'ct'om

No Cross, No Crown

꽃이 피었으니 봄, 부활

눈덮이고 차가워 겨울 겨울이라 매서운 바람 십자가 선 골고다 언덕

이제 꽃이 피었으니 봄 봄이 되었으니 꽃

여명의 빛이 비추듯 꽃잎 조용히 피어나 열린 무덤에 비추는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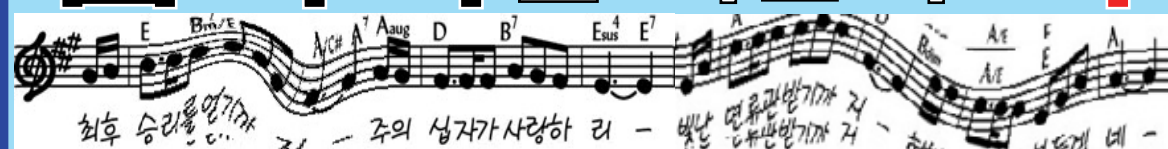
다시 돌아온 봄처럼 죽음에서 살아나 하늘로 오르시다

잃어버렸던 시간들은 꽃으로 피어나리니 눈물로 사랑한다 그 고통을, 그 아픔을

눈 녹듯 꽃 피듯 이제 노래하리 찬란타 찬란타 빛나는 영광의 아침을

시사진 이 동 진

십자가를 지난 후 부활이 온다



고난주간 새벽예배 3/29~4/3, 05:30 성 금요일예배 4/2(금) 오후 7시 부활절 예배 4/4(주일) 오전 11시

Passion of Christ



말씀으로 가득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화장로교회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이 동 진 담임목사



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

장애인 선교 “복음과 사랑의 실천” (4)



고후 1장에서 말하듯이 바울은 힘에 지남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그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그 때 주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고난 받은 사람을 위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후1:6).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와 장애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와 장애 문제를 다루면서 헨리 나우웬이 바라보는 장애는 죄의 결과인지 아닌지 따지지 말고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로 여기라는 것이다. 장애인은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짐과 부담만 될 뿐이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일지라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임을 드러낸다.

1. 장애와 죄

세상에 왜 죄와 불행이 있을까? 하는 신정론(theodicy) 문제에 관한 통상적인 답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다. 그것은 긍정적 부정적 의미도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정론에 관한 설명을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자칫 죄와 불행은 하나님의 능력과 뜻 밖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다.

죄와 불행도 하나님의 능력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 욕이 당한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사탄이 일으켰다. 만약 장애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도 없을 것이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불행이 나에게 발생되었다는 것처럼 외로운 일은 없다.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장애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발생된 일이어야

오히려 희망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다. 중요한 것은 장애 자체가 아니라 장애를 입었던 입지 않았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인간의 고난과 장애는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시작하였다. 에덴에서는 고난도 없고 장애도 없었다. 그러나 모든 장애가 1:1로 죄와 연결되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의 죄, 술 취한 운전자 때문에 교통사고를 입어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장이 공해를 일으키는 공장을 지어 주변 선생아들이 장애아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장애가 그 사람의 죄라는 생각

만 되었다는 공산주의 유토피아에서는 장애인도 중고차 정도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고귀한 존재라고 말하

오니니까 그 부모오니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심이니라”(요9:1-3).



뉴저지밀알선교단은 방글라데시 장애인선교를 후원하고 있다.

난이 온 경우를 우리는 욕을 통해서 혹은 바울의 경우를 보아서 알 수 있고 혹시 죄를 지어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주님께서 그 고난과 장애도 좋은 것으로 바꾸어주시실 것이기 때문이다(롬8:28).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 어떤 고통과 장애라도 저주가 없고 오직 우리 유익을 위한 훈련만 있을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게 된 것은 물론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다. 그러나 주님

고난과 장애를 입을 때 누구의 죄냐를 따지기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고난을 통해 이루실 주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각은 많은 종교에서 가르쳐왔다.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라는 차원에서 현재의 장애와 고난은 전생에서의 죄 때문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장애인을 죄인 취급을 하고 유교에서는 사람의 육체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인데 훼손하면 불효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장애인은 불효자가 되었으며, 인간은 물질로

고(창1:27) 장애도 누구의 죄냐를 묻지 않고 그 장애를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나타내게 하려함'(요9:3)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

이 말씀대로 그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요9:24-33).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장애나 이웃의 장애를 생각할 때 “누구의 죄냐?” 하고 과거 지향적으로 묻지 않고 “이 장애를 통해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야 할 것이다.

은 그 40년 동안을 훈련의 기간으로 바꾸셔서 주님을 더욱 아는 기회로 만드셨다. 욕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때문에 욕이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증거 되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고생을 했지만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고후12:9). 그리고

miju92@gmail.com

...교회 예배와 음악

(14면에서 계속) 건강염려 등 다양한 이유로 대면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온라인예배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다음 이유다. 또 온라인예배는 대면예배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지역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라인예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는 온라인예배가 사람들을 기도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또 온라인예배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멀티사

이트 교회를 결합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온라인예배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 코비드가 끝나도 교인들이 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또는 현실성과 환경에 순응하는 융색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들만으로 온라인예배를 정당화시키려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예배의 본질에 근거한 접근보다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상황에 기인되는 이유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온라인예배, 혹은 대면예배 등 예배의 가용성을 가리기 이전에 먼저 복음적인 온전한 예배는 무엇일까? 라는 원론적인 내용을 두고 가슴 깊이 고민해야 한다. 이 복음적인 예배는 시대의 사조와 정신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그 본질은 변할 수 없는 또 변화되어서는 절대 안되는 영원불

변의 진리인 것이다. 이 정신을 바탕으로 예배의 본질에 기초해서 오늘날 급속도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문화와 환경에 잘 순응해서 모든 예배를 디자인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iyoon@wmu.edu

하늘가족
증앙 MEMORIAL
장 의 사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증앙 장 의 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부활 축하 광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안복음 11:25)

TVNEXT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 올바른 정체성 정립
 - 올바른 세계관 정립
 - 올바른 가치관 정립
 - 기독교 사회문화 형성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김 사모
 http://tvnext.org
 tvnext.org@gmail.com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714)521-4636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Tel. (516)520-2004
 www.nygethseme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욱
 12-25 Clintonville St.
 Whitthoston NY11357
 Tel. (718)357-9199
 Fax.(718)361-9433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홍채
 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Tel. (917)968-1024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7635 Dean Martin Rd
 La Vegas NV 89139
 Tel. (702)749-9929
 Fax. (702)478-7224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Tel. (917)862-0523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미주양곡교회
 연합당회장: 지용수
 담임목사: 지용덕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213)380-9377
 Tel.(213)380-9079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벽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중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빛과소금의교회
 담임목사: 장요섭
 1864 Precinct Line Rd,
 Hurst, TX 76054
 Tel. (817)427-1020
 Fax.(817)427-0110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Tel. (718)265-2584
 www.fkcb.org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4562 211th St,
 Bayside, NY 11361
 (718) 229-0858
 www.nybaysidechurch.com

성화장로교회
 담임목사: 이동진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515-1191
 www.sunghwachurch.org

세계한인 기독교 이단대책
 회장: 김순관 목사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808)542-2922
 www.ikccah.org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Cell.(213)745-9191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el.(323)-737-3009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215)542-9037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
 (907)344-3182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el. (714)646-9259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el. (213)749-4500
 Fax.(213)749-6700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Tel.(253)536-6675
 www.facomacrc.com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3416 W. 1st St.
 LA, CA 90004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Tel.(808)585-1859